



2007년 봄/여름 < 제14호 >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NONPROFIT
US POSTAGE
PAID
MERRIFIELD, VA
PERMIT 489



원주카리타스 가족 걷기대회 14면
사진제공: 장도선 (워싱턴 중앙일보)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675-9681/703-968-301

이메일: caritasus@gmail.com 홈페이지: www.caritaswonjuva.com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연락처: 703-675-9681 / 703-968-3010
이메일: caritasus@gmail.com
웹사이트: www.caritaswonjuva.com

재단 이사장: 김용성 신부

고문 변호사: 이인탁

고문 공인회계사: 노상문

재정이사: 강민식, 김글라시아, 김명철, 유폴라,
정기혜, 조영혜, 차명자

운영이사: 김 데레사, 유홍열, 노상문, 고재오,
김명철, 차명자, 윤경자, 김글라시아

봉사자: 임상목(조지아 아틀란타 지역),
김정희(볼티모어 지역),
이스텔라(메릴랜드 지역),
이은배, 이그레이스, 강명희,
한영희, 박민수, 장정숙

포스터 디자인: 백경화

홈페이지관리: 하보이

홍보대사: 이은혜

본 회지는 매 6개월에 한번씩 발행됩니다.

발간인: 김용성 신부

편집인: 이소영, 장도선, 하보이, 김데레사, 차명자, Marta Case,
Brian Park, Sara Roeper, Jeff Osborn,

원고 교정: 정영희

인쇄: 코리아 모니터

“카리타스”(CARITAS)의 의미

라틴어 ‘CARITAS’는 사랑, 애덕, 자선 등의 의미를 지녔으며, ‘CARITAS’는 그리스도교의 오랜 전통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의 계명인 하느님사랑, 이웃사랑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가 확대되어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업을 가리키거나, 이러한 일을 하는 기구나 단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최초의 카리타스는 1897년 독일에서 설립되었고,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1950년 자선구호사업을 하던 각국 카리타스가 연합체를 이룬 것이 국제 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이다. 국제연합(UN) 협의기구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제 카리타스는 바티칸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자선, 구호, 사회복지, 개발사업을 조정하고 있다. 한국 카리타스는 1975년부터 국제 카리타스의 회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한국 카리타스’(Caritas Corea)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전 세계 162개 카리타스들과 상호협력하여 가난한 나라 카리타스의 구호, 복지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내에는 15개 교구 카리타스(사회복지회)와 각 개별 카리타스(625개 이상의 시설, 기관)들이 그리스도의 ‘애덕’을 실천하기 위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2. 목차, 카리타스의 의미	
3. 소중한 이웃	김지석 원주교구장
4. 비움으로 채워지는 행복	최기식 신부
5. 사랑한다는 것	김용성 신부
6. 2007년도 정기이사회	유홍열
7.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처럼	정영희
8. 행복으로의 초대	김데레사
9. 미국의 힘은 자원봉사	장도선
10. 톡톡튀는 우리 강사님, 넘버 원!!	김데레사
11. 그린위에 핀 사랑	홍알벗 기자
12. 골프대회	
13. 골프대회	
14. 원주카리타스 가족 걷기대회	장도선
16. 나는 행복합니다	고봉수
17. 아름다운 예비 신랑신부이야기	임형준/서새봄
18. 이웃돕기는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정영희
20. 파푸아뉴기니에서 온 편지	
22. 할머니들께 배워요	김 글라라 수녀
23. 사랑하는 헤빈이에게	
24. 기적을 이루는 환경수세미	
26. 복지관은 나의 쉼터	최동근
27. 원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28. 행복지킴이 김수옥 선생님	김경아
29. 여름방학에 받을 상을 그리며	유 헬레나
30. 황혼의 아름다운 봉사	김선희
31. 예섬의 집 은경이	
32. 희망의 발걸음	김용호
34. 허브 향기 가득한 살림터	이 테오파노 수녀
36. 결연아동소개	
38. 알츠하이머(치매)	
39. 복지회 물품안내	이소영
40.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	박수미
42. 20세기 미국 현대문학의 대표작가 -윌리엄 포크너 ...	이소영
44. West Virginia 산골마을, 토마스를 찾아서	이소영
46. Unforgotten War-잊혀지지 않는 전쟁	이소영
48. 러시아 팝 디바 -알라 푸가초바(Alla Pugacheva)	곽노은
60. 후원회비 내역	
62. 회원가입서 / 오늘,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63. 새로운 가족소개 / 후원금 입금액 보고	
64. 시: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소중한 이웃

원주 교구장 김지석 주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의. 식. 주를 해결하는데 어느 것 하나 이웃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버지니아 원주 카리타스 후원회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회원들에게 축하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따뜻한 손길이 이곳 복지 활동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고국의 낯모르는 불우한 이웃들뿐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해외의 가난한 이웃들에게까지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썩지 않는 보화를 하늘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마태오 6.4) 넘치도록 풍성히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웃이야말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가까이는 부모 형제 친척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족뿐 아니라 인류가족 모두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 왔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의. 식. 주를 해결하는데 어느 것 하나 이웃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무덤에 갈 때도 결국 이웃의 손을 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이웃이야말로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들이며 억누르고 제거해야 할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야 할 동반자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해도, 혹은 안 해도 되는 권고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분의 명령입니다.

교황 베네딕도 16세께서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란 제목의 회칙을 교황으로서의 첫 회칙으로 발표하셨습니다. 이 회칙에서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더불어 이웃끼리의 사랑 즉 교회의 ‘사랑 실천’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은 하느님 말씀의 선포, 성사 거행, 그리고 ‘사랑의 섬김’의 3중 임무로 드러난다.” (회칙 25항)고 말씀하시면서 ‘사랑 실천’ 이야말로 교회 본질의 한 부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집단 이기주의가 날로 팽배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며 희생과 봉사의 삶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주위의 모든 이웃들, 특히 이웃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인생길을 걸어가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장애인들, 그리고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사랑의 나눔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지니아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 날로 더욱 발전하여 이 세상 그늘진 곳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빛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카리타스”



상징 도안의 의미

- 네 방향으로 뻗은 붉은 색 불꽃과 십자가는 에덕(사랑)을 상징한다.
- 위에서 아래로 그려진 십자가 기둥은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위에서 아래로)과 하느님께로 향한 우리의 사랑(아래에서 위로)을 의미한다.
- 좌우로 뻗은 십자가 들보는 하느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웃사랑을 표시한다.
- 네 방향으로 뻗은 불꽃은 자신을 마쳐 이웃에게 봉사하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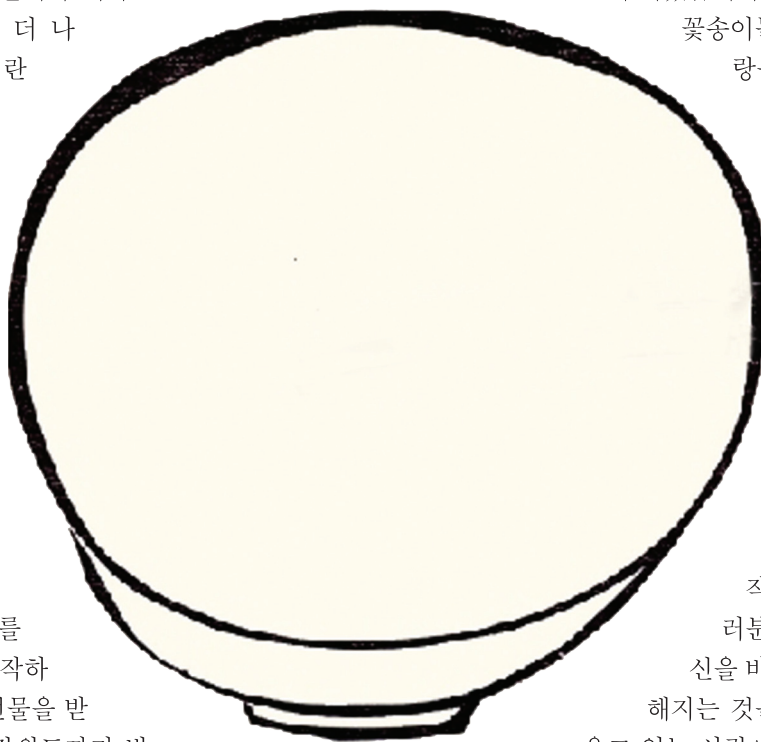
비움으로 채워지는 행복

최기식 신부 (원주가톨릭사회복지지원회장 / 천사들의 집 원장)

워싱턴, 버지니아 원주 카리타스.
자주 오고가던 이웃 마을 같은 이름이고 정을 많이 나누는 이웃 형제모임 같은 이름입니다.

천주교 원주교구에서 한 사제가 파견되어 간 후,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마음으로 기웃거리며 방문하고 손을 내민 지가 20년이 지났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80도가 오르내리는 여름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없이 비지 땀을 흘리며 성당 지도자들과 함께하던 2박 3일의 묵상회,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운동’ 이란 제목으로 마음으로 삶을 나누고 토론하며 사랑을 다짐하던 일, 아들이 보고 싶어 먼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 아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가서 번데기를 파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동료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하는 학생에 비유하며 주임신부가 나를 번데기 장수로 미사 중에 소개해 신자들에게 폭소를 선물하던 일, 그렇게 시작하여 사랑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아온 것이 200여 차례 강원도까지 방문하며 봉사하고 사랑을 전달하던 봉사자와 할머니들, 자녀들에게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봉사를 시키던 부모님들, 낯선 곳에 가서 이민생활 중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도 고향을 그리며 연민의 정을 끊임없이 보내주시던 많은 분들..... 만남과 만남의 순간들은 모두가 추억 속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리들로 자리하여 남습니다.



원주카리타스! 마치 잔 불씨들이 갑자기 큰 불기둥을 이루듯 사랑의 큰 기둥으로 솟아올라 온 세상에 빛을 발하나 싶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소외되어 고통 받는 어르신들을 친아버지로 여기며, 소년 소녀가장이 되어 방황하는 아이들을 자식으로 생각하고, 굶주리며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내 자식으로 여기며 젓과 양식을 나누고 힘이 되어주시는 참 사랑과 생명의 주인공들, 기쁨과 평화를 외치는 음성이고 사막을 푸르게 하고 어둠을 밝게 만드는 생명과 빛이 되는, 등대 같은 불기둥이 되었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작은 꽃송이들이 모여 꽃동산을 이루듯, 참 사랑을 사는 이들의 마음이 모여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희망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쌓여 이루어진 것일까요.

원주카리타스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사랑의 강과 희망의 동산은 영원한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슬픔 중에서도 위안의 순간을 바라보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마음에 이미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비우는 데서 채워지고 나눔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아는 사람, 고통과 슬픔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가슴을 가진 사람, 자신을 낮추며 회심하는 사람만이 느끼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원주카리타스! 사랑의 강은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사랑의 불기둥은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나 끝없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축복을!



사랑 한다는 것

김용성 신부 (원주카리타스복지재단 이사장, 성정바로 천주교회주임신부)

198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고(故) 마더 테레사 수녀를 영국의 방송기자가 회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테레사 수녀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살아왔는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테레사 수녀는 주름진 얼굴을 들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버림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피 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다만 살아 있는 몇 시간만이라도 느끼게 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지요.”

사랑이란 말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많이 노래하며 가장 많이 바라고 꿈꾸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삶이 무의미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견디어 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마도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아닐까요?

우리 눈에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느님께 사랑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 사랑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보잘것없는 이 한 명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포기해도 하느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의 원리를 깊이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스스로 인간이 되시어 사랑의 참모습을 보였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요한 13,34)”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란 바로 우리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땅위에 사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증거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가 사랑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비로소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며 사랑의 신비를 가장 힘 있게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작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내 가정이 비록 가난하고 초라할지라도 그 곳이 사랑의 계명이 시작되는 곳이며 은총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다니는 직장이 비록 고달프고 힘든 곳일지라도 그 곳이 바로 하느님 사랑의 원리가 새롭게 적용되는 은혜로운 장소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정기이사회

유홍열 (원주카리타스 운영이사)



복지재단은 지난 2월 6일 성 정바로로 성당 회의실에서 재단 설립 2주년을 맞아 정기 이사회를 가졌습니다.

모임에는 재단이사장이신 김용성 신부님을 비롯 김테레사 회장과 기존의 3명의 운영이사 외에 올해부터 운영이사로 참여하게 된 김명철, 차명자 이사가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사업보고 중 제1회 골프대회, 청소년 세차 행사, 라인댄스강습을 통한 모금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업들과 함께, 활동계획에 포함돼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한 추석장터 한마당 과 자선의 밤 행사에 대해서도 토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IRS로부터 비영리기관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안건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2007년 사업계획으로는 지난3월 개최된 제2회 지구촌 불우 이웃돕기와, 회원 자녀들을 참여시키는 청소년 모금행사로 건 기대회 등이 논의됐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재단의 업무가 많아짐에 따라 운영이사진 확대의 필요에 따라 운영이사를 2명 더 보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 이사진의 동의로 김글라시아, 윤경자씨를 영입하기로 하였고, 또한 운영이사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우선 고재오, 김글라시아 이사를 청소년 마케팅분과, 김명철, 차명자 이사를 펀드레이징 마케팅 분과 이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모금행사의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다양한 토론들이 있었으며 김용성 신부님께서 “이벤트를 통한 모금에만 주력 할 것이 아니라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재단을 지원할 회원들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는 의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홍보 수단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회지 발행의 개선점과 유급 직원 채용의 필요성, 재정업무의 전산화 등에 대해서도 토론됐습니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정영희 (원주카리타스 편집인 / 워싱턴 한국일보 기자)

어느 젊은이가 매일 통근 열차를 타고 회사로 출근했다. 기차가 지나가는 길에 경사진 언덕을 오르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지날 때면 속력이 떨어져 철로 옆에 있는 집안이 들여다 보이곤 했다.

그런데 수많은 집들 중 어떤 집에 병든 노인이 항상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매일 그 모습을 본 젊은이는 가슴이 아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이름과 주소를 수소문해 병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카드를 보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날마다 철길을 통해 출근하는 한 젊은이가' 라고 써서 보냈다.

며칠이 지났다. 어둑어둑한 퇴근길에 젊은이는 습관처럼 그 곳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방은 비어 있었고 창가에는 밝은 전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유리창에는 큰 글씨로 쓰여진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 종이에에는 '얼굴을 알 수 없는 그대에게 축복을' 이라는 글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 읽게 된 글이 가슴을 따뜻하게 해 준다.



< 걷기대회 취재를 하며 >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 .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대다수 이민자의 바쁜 생활성격상 하느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서 받은 크고 작은 사랑을 잊고 살기 쉽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때로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목상 가운데 사랑의 빛에 대해 돌아보는 삶의 여유가 필요하다.

사랑의 빛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아름다운 사랑을 넉넉히 나누어 주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서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일, 그런 일들이 모여 세상을 더욱 맑고 아름답게 해 준다.

빽빽한 살림 속에서도 나보다 더 가난한 이웃을 향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형편껏 물질로 나누면 된다.

원주 카리타스 김테레사 회장에 의하면 풍족한 사람보다는 자신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훨씬 많다고 한다.

이는 기부문화와 자원봉사가 생활화된 미 주류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성공한 기업가는 물론 평범한 시민, 중산층의 참여가 주를 이룬다.

사랑 나눔이 꼭 물질적인 필요는 없다.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연주로, 음식을 잘하면 음식봉사로,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미소도 훌륭한 사랑 나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칭찬 한 마디, 등 토닥여 주기, 힘들고 절망에 빠진 사람 손을 잡아주거나 아무 말 없이 안아주기, 따뜻한 눈빛도 훌륭한 사랑 나눔이기 때문이다.

나날의 삶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워싱턴 지역 한인 동포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들이 모여 강원도 지역 불우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강조한 것처럼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서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오늘이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행복으로의 초대

원주카리타스 후원회장 김데레사

후원회가 설립된지 올해로 20년이 됩니다.

1987년,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장애인시설 ‘천사들의 집’ 원장이시고 원주가톨릭 사회복지후원회 회장인 최기식 신부님께서 버지니아 성정바로 천주교회에 오셔서 장애아동들을 소개하였던 그 감명깊던 시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돕겠다고 나섰고 처음으로 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고국을 방문할때마다 찾아 본 원주복지회는 갈때마다 시설이 늘어 현재는 46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장애인, 어르신, 아동, 청소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봉사자들을 접하며 이곳에 사는 우리들이 직접 가서 그들을 도울수는 없지만 보dana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후원자의 역할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은 그렇게 시작된 민간재원 후원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름도 우리 사랑을 전달할수 있도록 작은 불씨가 되어 준 고국의 원주복지회의 이름을 따서 원주라는 이름을 넣어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IRS로 부터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비영리기관으로 인가를 받았고 고국뿐만 아니라 현지(US), 해외의 열악한 시설들을 돕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복지시설들은 날로 늘어나고 후원금은 늘 부족합니다. 모금을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 발로 뛰는 골프대회, 걷기대회, 카워시 행사등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고 여러곳으로 나누어 도움을 드릴수 있는 기쁨도 함께 합니다.

보dana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이 현황을 교포사회에 알려 함께 힘을 모을수 있기 위해 2001년부터 홍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신문사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했고 그때부터 매주 중앙일보에 시설소개가 나갔으며 주간위싱턴에서도 매주 시설소개를 내보내 주시며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후원회지를 발행하기 위해 후원회의 재정을 뒷받침 해주실수있는 분들을 찾아나섰고 현재 일곱분의 재정이사께서 꾸준히 후원회를 뒷받침 해주시고 계십니다. 2001년 가을호를 시작으로 레터사이

즈 8면의 후원회지가 시작되었고 다시 16면으로 늘리고 또다시 32면 타블로이드로 늘렸으며 이번 ‘아름다운세상만들기’ 제 14호부터는 풀칼라잡지식으로 64면(12,000부 발행)의 후원회지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성껏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100% 복지시설후원금으로 매달 보내지고 있으며 매달 보낼때마다 자세한 후원내역을 한국일보, 중앙일보, 주간위싱턴에도 함께 보고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금 내역은 카리타스홈페이지(www.caritaswonjuva.com)에 매주 업데이트 시키고 있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후원회로 성장하기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카리타스재단은 전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조그만것들을 각분야에서 조금씩 보탬으로서 보람과 기쁨을 만끽하며 행복해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행복에 초대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함께 작은 힘들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는 도움을,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봉사자들에게는 힘이 되어 드리며 우리는 보다 큰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만들기의 한 가족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불우아동돕기 골프대회 봉사자들과 >



미국의 힘은 자원봉사

장도선 (원주카리타스 편집인 / 워싱턴중앙일보 논설위원)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 그 힘의 원천을 한 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광활한 국토에 무진장한 자원, 필적할 상대가 없는 막강한 군사력, NASA로 상징되는 첨단 과학기술, 하버드·예일 등 명문 대학, 서부 개척시대부터 이어져온 프론티어정신, 빌 게이츠와 같은 창의적 기업인들...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 정답에 가까운 해석일 것이다.

그런데 현대판 로마제국인 21세기 미국을 이야기 할 때 앞에서 열거한 항목들 이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자원봉사'다. 미국이라는 선진국을 이끌어 나가고 미국을 진정 '미국답게' 만드는 힘은 백악관이나 의회가 아닌 수천만명의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나온다고 확신한다.

미인구조사국(Census) 통계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44%. 이들이 자원봉사에 투자하는 시간은 주당 평균 3.6시간에 이른다. 특히 12~18세 청소년들의 경우 자원봉사 참가 비율은 55%로 절반을 넘어선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2400억달러에 달한다. 미국인들이 매년 자선단체에 내는 기부금도 이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결국 미국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 쏟아붓는 돈, 시간, 노력의 합계가 연간 4800억달러라는 말이다. 더욱이 이는 2000년 센서스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에 불과하다. 2007년 현재 가치로 환산하자면 금액은 훨씬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2001년 9.11 이후 미국인들의 자원봉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미국 사회가 자원봉사로 인해 누리는 혜택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의 어두운 구석 구석을 이룸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대신 밝혀주고 있다. 의료계, 교육 현장, 장애인 지원, 빈민구제 등 많은 분야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자원봉사는 어떤 의미에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일부인 셈이다.

미국에서 이처럼 자원봉사가 보편화된 이유를 전문가들은 미국 사회에 흐르는 '고귀한 자의 의무' 즉 '노블리스 오

블리제' (noblesse oblige) 정신으로 설명한다. 자신이 소유한 재물, 시간, 건강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실천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자원봉사를 이같은 도덕적 의무감만으로 설명하기는 무리라고 본다. 주관적 견해지만 자원봉사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보람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생각한다. "주는 것 보다 받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 처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삶의 기쁨과 보람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탈선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원봉사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지난 6월 3일 불우이웃돕기 걷기대회행사를 마련한 원주카리타스 청소년 봉사자들의 한결 같이 밝고 활기찬 표정이 이를 반증해 준다.

다행히 한인사회에서도 요즘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무척 반갑고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다. 보다 많은 한인들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자선사업으로 잘 알려진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생전에 자선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두고 떠나야 할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을 살아서 보람 있게 쓰라는 충고다. 물질 뿐만 아니라 시간과 건강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자원봉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톡톡 튀는 우리 강사님, 넘버 원!



지난 4월 11일부터 8주 동안 진행된 라인댄스 강습에는 모두 24명이 참여해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인댄스를 배운다고 신나게 뛰면서 그야말로 소녀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습 때마다 열정과 인내로 우리를 이끌어주셨던 홍세실리아 강사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스텝 하나하나를 몇 번이나 반복해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잊을까봐 인쇄물까지 챙겨오신 자상하신 우리 강사님, 잊고 살던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주시고 웃음보따리를 듬뿍 안겨주셨던 강사님. 그런 강사님이 있기에 바쁜 생활 중에도 수요일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어느새 8주가 지나가 버렸네요.

디스코 리듬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들고, 에텔바이스 선율에 맞춰 왈츠를 출 때는

마치 무대에 선 댄서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고, 베사메무초가 흘러나올 때는 그 선율에 매료돼 황홀했지요. 삼바, 폴카, 롬바, 차차차 등을 배울 때는 우리 모두 엔돌핀이 나올만큼 행복했습니다.

불우이웃을 돕고자 당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해주신 강사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본받아 우리도 앞으로 선한 일에 더욱 분발하려고 합니다.

소감 한마디!!!

- "너무 재미있어요."
- "40대 주부지만 소녀같은 기분이에요."
- "이 시간을 통해 은혜를 흠뻑 받았어요. 종강이 돼서 너무 아쉬워요."
-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어요."
- "항상 수요일을 기다려요. 내 희망. 엔돌핀 주머니."
- "운동이 많이 되더군요."
- "댄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도 할 수 있었다니!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 "정신 건강에는 최고더라고요."
- "운동도 되고 너무 좋아요."
-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 "운동도 하고 이음도 돕고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 "기대 이상으로 좋았고 정말 감사합니다."
- "몸과 마음에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강사님도 한마디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신나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작은 능력을 활용해 불우이웃 돕기에 동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9월에 모두 다시 만나게 되길!"



제2회 지구촌 불우아동돕기 골프대회

그린위에 핀 사랑

홍알벗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미화 200달러만 있으면 70명 넘는 네 팔 어린이들이 한달 동안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불우아동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워싱턴 지역 한인 골프와 후원자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3월25일 헤이마켓 불런골프클럽(Bullrun Golf Club)에서 개최된 지구촌 불우아동돕기 골프대회엔 워싱턴 일원의 아마추어 골퍼 130명이 출전, 화창한 날씨 속 골프를 즐기며 불우이웃을 돕는 보람을 만끽했다.

골프대회 진행을 위한 그린피와 카트비, 광고비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액 그랜드마트(대표 강민식)가 후원했으며 페덱스(Federal Express) 등 5개 미국계 회사도 스폰서로 참여해 행사를 지원했다. 또 한인업소들도 대거 스폰서를 자청해 후원금 모금을 도왔다.

이날 행사를 위해 수십명의 자원봉사자들도 경기진행 요원, 손수 점심, 저녁식사를 준비했으며 참가자들의 여흥을 위해 양인석 가요동우회장과 초대 가수 김혜자씨가 무료로 마이크를 잡아 주위를 호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모아진 후원금은 2만1,092 달러.

김 테레사 회장은 “각계에서 기대 이상의 많은 도움을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앞으로도 한국은 물론 네팔과 아프리카 등지의 불우아동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대회 참가자 중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하신데도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클럽을 찾은 분이 계셨고, 멀리 버지니아 비치에 계신 분도 불우이웃돕기에 동참하기위해 오신분이 계셨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상자명단 상품후원

시상자명단		상품후원	상품
메달리스트	김옥산	센터빌 미건의료기 제공	금사황토 옥메트 Double Size 2 way heating
다타상 1위	임윤호	Bull Run Golf Club 제공	Bull Run Golf Club Green Fee ticket 2인용
다타상 2위	손대례사	예촌식당제공	예촌식당상품권\$50
다타상 3위	윤수호	예촌식당제공	예촌식당상품권\$50
다타상 4위	장 일	롯데비디오제공	롯데비디오상품권\$20
남성 A조 1위	정주원	토다이 제공	토다이 상품권 \$200
남성 A조 2위	정구태	엘리사벳화장품 제공	Dr. Formula
남성 A조 3위	문성환	바잉투게더 제공	비디오
장려상(다타2위)	곽한영	롯데 비디오 제공	롯데비디오 상품권 \$20
남성 B조 1위	임승찬	갤러리아안경 웨어팩스제공	갤러리아안경 상품권 \$200
남성 B조 2위	박상건	바잉투게더 제공	비디오
남성 B조 3위	서영진	웰빙부페 제공	웰빙부페 상품권 \$100
장려상(다타2위)	최광엽	롯데 비디오 제공	롯데비디오 상품권 \$20
시니어조 1위	김광운	엘리사벳화장품 제공	Dr. Formula
시니어조 2위	조정남	바잉투게더 제공	비디오
시니어조 3위	문성호	웰빙부페 제공	웰빙부페 상품권 \$100
장려상(다타2위)	박장호	롯데 비디오 제공	롯데비디오 상품권 \$20
여성조 1위	염경애	그레이스옥 토탈헤어살롱 제공	잡티제거 및 스킨케어 상품권
여성조 2위	광춘비	바잉투게더 제공	비디오
여성조 3위	최숙희	김숙희님 제공	토스터 오븐
장려상(다타2위)	강명희	롯데 비디오 제공	롯데비디오 상품권 \$20
출인원		유로모터벤츠/유스티스한 제공	벤즈 1yr. Leased
장타상	정우현	엘리사벳화장품 제공	Dr. Formula
근접상	권오걸	엘리사벳화장품 제공	Dr. Formula

함께 해주신 자원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점심, 저녁준비봉사팀 / 골프대회 진행팀 / 학생도우미팀 /
 여흥을 맡아주신 양인석 가요동우회장님과 김혜자님 / 사회 이은혜 홍보대사
 특히 점심, 저녁식사를 총괄하여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박루시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골프대회 후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Title Sponsor

그랜드 마트/강민식 대표

Benefactor Sponsor

EuroMotorCars Benz_MD
-한유스티노 님

Corporate sponsor

홍성철/세실리아 님

Patron Sponsor

김호연 님
박용걸/완다 님
Federal Express
Mashantucket Pequot Tribal Nation
김명철 님

Sponsor

최지돈 님
장현민 님
차명자 님

Hole Sponsor & 10% 식당 할인쿠폰제공
-참가자 전원 사용권

펠리스 레스토랑

설악가든
가보자식당
외갓집
정대감 갈비

Hole Sponsor

동아식품/강남중 님
중화원/이레성
세라미용실
Perio Implants Center/강원근 님
우리은행
하주영치과
태평양부동산/남데레사 님
ReMax Gateway/Rachael Kim
늘푸른 여성골프회/최평란 님
Annandale Sunoco 자동차정비/오금택 님
Young Won Trading/황원균 님
워싱턴인안부동산/박상건 님
현대부동산/정희수 님
정용수 님
지랜드유니폼/황복성 님
애난데일 골프/이동철 님
웨어펙스롯데 화장품코너/최승준미카엘 님
Choice Woodworking Co./최상규요셉 님

Fairfax Memorial Park
WSO Specailizing Window & Door/오왕석 님
권순리오바
익명(J)
Jimmy Kim 님
ACLI American Council for Life Insurer
Lee, So & Associates, PC
지구촌마켓/김만용 님
메가부동산/대표 문미애 님
베스트장비주식회사

Friendship Sponsor

익명(K)
이내연 님
김문철 님

물품 Sponsor

빅프린팅/캐빈 김 님
낙원떡집
Ottenberg Bakery
지구촌마켓
고재오 님



지구촌 마켓



EuroMotorCars Benz_MD



정대감 갈비



가보자 횃집



에 촌



Annandale Sunoco



그레이스 옥 토탈헤어살롱



웰빙부페



갤러리아 안경



Bull Run Golf Club



낙원 떡집



토다이

원주카리타스 가족 걷기대회



원주카리타스 버지니아 후원회(회장 김테레사)가 임파선암을 앓고 있는 김덕경군(16세.버지니아 헤이마켓)을 돕기 위해 마련한 ‘가족 걷기대회’가 3일 헨든 프라잉펜 파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찾은 1백여명의 한인들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덥지 않은게 오히려 걷기 좋았다”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뜻 깊은 행사에 참가하게 돼 기뻐다”고 입을 모았다.

성인 20달러, 청소년 15달러씩 참가비를 받은 이번 가족 걷기대회에는 날씨 때문에 1백여명이 참가했지만 실제 참가비를 내고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2백명에 달한다. 또 워싱턴중앙일보와 그랜드마트, 차명자치과 등 워싱턴지역의 많은 한인 업소와 후원자들이 기부금을 내 총 수입금이 4990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리타스 버지니아 후원회는 행사 후 보도자료를 통해 “걷기대회 수입은 4990달러, 지출은 티셔츠 제작 및 장소 임대 등 686달러로 순 수익이 4304달러로 집계됐다”면서 “후원회가 사랑의 모금통을 통해 모아 확보하고 있는 긴급구호기금에서 696달러를 보태 총 5천달러를 덕경군 가족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임파선암을 앓고 있는 덕경군은 3년 정도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확률이 75%에 달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덕경군 가족의 딱한 사정이 워싱턴중앙일보를 통해 보도되면서 각계에서 도모의 손길이 답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3일 가족 걷기대회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면서 주최측이 한 때 행사를 취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하기도 했다. 그

‘인웃사랑’ 빗속뚫고 100여명 참가



러나 다수의 참가 신청자들이 날씨에 관계 없이 참석하겠다고 의욕을 보임에 따라 예정대로 강행됐다. 이에 따라 유홍렬씨 등 후원회 관계자들은 참가자들을 위해 비를 맞으며 핫도그를 구웠고 시티뱅크에서는 물을 제공했다. 윤경자이사는 핫도그, 소다, 에너지바 등 먹거리를 후원했다. 또 김소화, 그레이스 리, 대니얼 장 등 원주카리타스 소속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은 빗속에서 교통 안내를 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김테레사 회장은 “다행히 걷기대회가 시작되면서 빗줄기가 약해져 큰 문제 없이 행사가 마무리됐다”면서 “비를 맞으면서 걷기대회에 참가한 것이 사람들에게 두고 두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워싱턴중앙일보 장도선 기자 >



덕경이돕기 가족걷기대회에 도움을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랜드마트, East Coast Inc.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Women's Club Members, Citibank, New Star Realty, Felicia Kim, Peter Lee, Uni Communication Cingular, Greensboro Corp.Café, KBN-TV, The Korea Daily, Yong Joo Lee, Myong J. Cha D.D.S., Willow Wood Café, 심안젤라, 황덕수, 권강자, 김용성신부, 최기식신부, 장현민, 윤경자

Special Thanks:

비디오 촬영을 해주신 Q Studio의 장안셀모님, 취재해 주신 한국일보 정영희기자님, 중앙일보 장도선국장님, 주간워싱턴 이종성 사장님 그리고 먼길을 달려오셔서 사회진행을 맡아주신 홍보대사 이은혜님께 감사드립니다.

*** 걷기대회 동영상은 카리타스 웹사이트 www.caritaswonjuva.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후원회원 고봉수



사진: 왼쪽부터 아들, 아내, 사위, 딸, 본인, 며느리

어느 날 갑자기 며늘아가의 한마디 ‘아버님 글 한줄 부탁드려요’ 하는 말 한마디가 글이라고는 편지 밖에 써보지 못한 나로서는 못 쓰겠다는 소리는 못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다 펜을 들게 되었다. 조그마한 콩 한조각이라도 나누어 먹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주위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나는 행복합니다.

밥상에서 식사를 할 때 밥알 한 톨이라도 흘리며 식사를 할때는 ‘이 밥알 한톨은 아빠의 땀방울 하나’ 하면서 오남매를 말없이 키운 사랑스러운 아내가 옆에 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나 국수 싫어, 밥줘!’ 하며 등에 업혀서 투정부리던 철 없었던 딸아이가 이제

는 다 자라서 사회에 한 귀퉁이를 담당하는 자랑스러운 딸 아이가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 누나들 사이에서 아무 말썽부리지 않고, 부모한테도 다 자라도록 말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누나들을 잘 배려하고 잘 자라 마음씨 착한 배필을 만나 정다웁게 잘 살아주는 아들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 밖에 둘도 없는 사랑스런 며늘아가가 있어 행복, 또 행복합니다.

처마밑에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이 모여, 시냇물을 이루고, 시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흘러 바다로 흘러 가듯이 강물 위에 흘러가는 원주카리타스 라는 배를 타게 되어 행복합니다.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고,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듯이, 워싱턴 포토맥강에서 힘찬 뱃길을 열고 있고, 선장님 이하 여러 분야에서 묵묵히 말없이 노를 저어가는 분들이 있는 원주카리타스 배를 타게 되어 나는 행복합니다.

원주카리타스 배 O.K. 힘차게 ~노를 저어가렴, 저 파도가 넘치는 더 넓은 바다를 향하여~ 원주 카리타스, 화이팅!

고봉수님 가족은 현재 각각 아동결연을 맺어 고국의 10명의 아동들을 후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아드님과 며느님은 후원회의 재정, 운영이 사로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예비 신랑, 신부이야기

임형준 - 서새봄

제가 어떤 ‘결혼 선물’을 할까 고민하고 있을때 제 약혼자가 자선단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에 기쁜마음으로 동의를 했고 그 주일날 주보옆에 있는 원주 카리타스 소식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소식지에 담겨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 중 네팔 아이들의 사진들이 제눈에 들어왔고 한명의 아이에게 얼마의 자금이 일년동안 필요하지 않게됐습니다.

그 다음주일 성당 사무실에서 테레사 자매님(WonJu Caritas Coordinator) 연락처를 받고 집에가는 중 우연찮게 자매님을 만나게 되고 저희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었고 이렇게 원고까지 쓰게되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일 왼손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렇게 이러한 일로 인터넷과 잡지에 저희들 이야기가 실린다는 것이 조금 부끄럽습니다. 저희 둘을 배필자로 맺어주신 하느님께 그 감사와 찬양을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의 네팔 아이들 돕는 프로그램을 통해 드릴 수 있어 저희들은 무척 기쁩니다. 더 열심히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3일 결혼식을 올리는 임형준, 서새봄님께서는 네팔 아동 10명을 결연후원하셨습니다. 주님 축복이 넘치는 성가정이 되시길 기도드리며 두분의 결혼 축하드립니다.

My fiancé was wondering which gift to give to our guests who will be attending our wedding. I remembered from a wedding I attended previous year where the couple donated some money to one of their favorite charities. When I suggested the idea to my fiancé, she was very delighted about the idea. The following week, when we attended Mass at our church, a picture of a boy caught on the corner of her right eye. It was the Wonju Caritas Newsletter with a picture of a boy from Nepal. She read more in detail about the organization and how it helped many different people around the world. So, we decided to donate our money to this organization to support kids from Nepal. We stopped by the church office to get some more information on how to make the donation. They gave us the contact person's name and phone number. An hour later, we happened to run into her and got some information and feedback from her. She suggested that we write something about this occasion and this is how our story got on this paper. We just wanted to help the kids in Nepal while beginning our union together with giving attitude for the rest of our lives. We already feel and know that we have been blessed by our God and we hope to spread the love and joy of our Lord to anyone and everyone. We will strive to be a holy family. Please pray for us as we will pray for you. God bless us all.



“이웃돕기는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박루시아씨(46)는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사장 김용성 신부)의 ‘살림꾼’으로 통한다.

지난 3월25일 치러진 지구촌 불우 아동 돕기 골프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던 것은 박씨를 비롯한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어 가능했다.

올해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골프대회와 그 전에 치러진 고국 불우이웃 돕기

추석장터 등의 성공 뒤에는 새벽잠을 설쳐가며 음식 장만을 진두지휘한 박씨등 부업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다.

올해 골프대회에서도 그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센틸리 델리 샵 주방에서 20여명의 음식 자원봉사자와 함께 모든 음식을 만들고 준비했다.

박씨는 “그저 몸으로 때우는 불우이웃 돕기일 뿐”이라며 쉼스러워 했다.

“다른 재능이 있거나 돈이 많다면 그런 것으로 봉사하겠지만 다른 재주는 없고 할 줄 아는 게 음식 만들고 장사하는 것 뿐이라 뒤에서 작은 힘이라도 보탬을 뿐”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의 김 테레사 회장은 “루시아씨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않고 앞장선다”면서 “루시아씨와 같은 숨어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올해 골프대회에서 2만 1천 달러의 후원금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복지재단이 워싱턴 지역 한인업소에 비치한 ‘사랑의 저금통’ 모금 활동에도 열심이다.

그의 업소에는 ‘사랑의 저금통’이 세 개나 있다.

손님들이 거스름돈이나 1달러 등을 넣어주는데 그 돈이 고국의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 장애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때론 미국인 손님들이 ‘사랑의 저금통’에 부착된 영문 설명서를 읽고 질문이라도 하면 박씨는 열심히 들고 있는 불우이웃들에 대해 설명한다. 때로 어떤 손님은 10달러, 20달러의 거금(?)을 넣어주기도 하며 박씨를 기쁘게 한다.

Lucia Park, 46, is known as the “consummate manager of food” for Caritas Wonju International,

Inc. Thanks to Lucia and many volunteers, Caritas’ 2nd Golf Tournament on March 25, 2007 to help impoverished people worldwide, was a great success. Sacrificing her precious time including early morning sleep, she skillfully organizes the preparation of food for many successful fundraising events in the past, including the Fall Festival and the 1st Golf Tournament held last year. In her Centreville deli shop, she and twenty other volunteers rally together to cook all those delicious meals.

“It’s embarrassing to be interviewed for a newspaper article”, says Ms. Park with a smile. “All I’m doing is donating my physical labor to help those in need. I would rather be contributing a lot of money, or using some special talent, if I had any. Since I only know how to make food and operate a business, I can only help out a little behind the scenes.” Theresa Kim, president of Caritas Wonju International, Inc., responds by saying, “Without hesitation, Lucia always stands on the front line for any occasion to help others. Many like Lucia have continued to quietly support the organization, making it possible to raise \$21,000 from this year’s golf tournament.” Lucia also works hard to manage the donation boxes that are distributed to many small businesses in the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here are three “Containers of Love” at Ms. Park’s deli shop where customers deposit small change or dollar bills. Eventually, these donations add up to enough to provide valuable gifts for young girls and boys, the elderly, and those with disabilities. Whenever any of her American customers inquire about the messages (written in English) attached to the containers, she speaks enthusiastically about the lives of underprivileged people. It makes her day when \$10 or \$20 dollar bills are deposited in the donation boxes. The average monthly total of donations collected by businesses in the area, including Ms. Park’s, is about \$800 to \$1000.

“It is heartwarming to share”



이렇게 박씨의 가게를 포함, 워싱턴 지역 한인 업소에 비치된 사랑의 저금통을 통해 모금되는 액수가 매달 800~1천 달러에 이른다.

그는 아들 제임스가 생후 6개월때 서울에서 입양했다.

“사실 제임스를 데려올 때 가정이 없는 아이한테 사랑과 행복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키우다 보니 제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게 됐다고. “아들 아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지 몰라요. 자원봉사, 불우이웃돕기는 결국 나를 행복하게 일입니다.”

박씨는 남편 빈센트 박씨(엔지니어), 아들 제임스(셴 베로니카스쿨 1학년)군과 라우든 카운티 사우스 라이딩에 거주하고 있다.

(정영희 기자-워싱턴 한국일보)

Lucia adopted her son, James, from South Korea when he was six months old. She says, “My main wish in bringing James to our home was to give love and happiness to a homeless child. And, I’ve come to realize that I am receiving as much, or more, happiness myself from raising him.” Her own experience has inspired her to become more active in helping others, particularly the underprivileged. “Just as with my son, it is a thrill to know that my little efforts can give so much empowerment and encouragement to those in need. Ultimately, volunteering to help others has made me very happy.” Lucia Park lives in Southriding, Loudon County (Virginia) with her engineer husband, Vincent Park, and her son. James is currently a 1st grader at St. Veronica School.

(Reporter Young Hee Chung, HanKookIlBo, December 23, 2006)



파푸아뉴기니에서 온 편지

+ 찬미예수님

원주카리타스복지재단의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리며 신앙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일을 공유하며 예수그리스도의 마음, 머리,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생활안에서 뿌리내려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성을 더욱 깊이 헤아리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도 선교의 사명을 이곳 PNG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세노리나 수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후원금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목입니다. 그 전에는 학교를 운영하시는 수녀님들이 주간에 학교에서 뛰고 주말은 무허가 빈민촌을 방문하여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관계를 지속 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그 일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매일 그들의 마을을 방문하여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프리스쿨을 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들 동네에서 함께 놀고 노래 부르고 맨 바닥에 앉아 공부하다가 이제는 추장님의 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그나마 학교의 꼴을 갖

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째입니다.

뜨거운 햇빛을 등지고 천막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초등학생들, 평상에 앉아 선생님의 목소리에 열중한 유치반 어린이들, 제법 듬직한 모습으로 형님처럼 앉아 공부하는 청소

년들, 이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못가 하루종일 몰려다니며 갬블링에 빠져 있던 아이들입니다.

드세고 힘겹지만 하루 하루 달라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인내와 참 사랑을 배워 간답니다.

이곳 학생들 장학결연은 일년에 200불입니다. 아이들의 진학을 위한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Bernard



Danel



Glen



James



Martin



Steven



“온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임하소서”



이곳 파푸아뉴기니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느님 안에 한 백성인 우리 모두 건강하고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불러일으키시고 키워주시는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임하소서” 라고요.

4월 부터는 급식도 시작하였습니다. 영양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우유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식은 직접 만들어 줍니다.

노동력은 많은데 일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더해주는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시작한 것은 튀김장사입니다. 이곳은 바나나와 고구마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한국식 튀김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그들이 만든것을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판매해 학비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지요.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회원님들의 손길은 그들 미래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밑거름이 되어 이 세상의 생명을 탄생시키고 성장시키는 힘이 될것입니다.





할머니들께 배워요

매릴랜드 어르신 시설 '성가정의 집' 김글라라 수녀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창문 블라인더 사이로 밝은 햇살을 맞이하며 하루가 시작되는 성가정 할머니 집.

어린이처럼 눈을 비비며 작은 몸을 무겁게 움직이시는 박 할머니는 늘 미소로 아침을 맞이하며 웃음으로 하루를 정리하시는 우리 성가정에서 제일 바쁘신 분이시다. 노인대학에 다니시라, 주일날은 성당 다녀오시며 틈틈이 독서하고 말씀나누기를 무척 좋아하시는 할머니시다. 그분의 양보하며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항상 아침잠이 모자라 ‘굿모닝’ 소리에 이불을 살짝 머리 위로 올리시는 정마리아 할머니, 함께 하셨던 친구할머니들을 모두 천국으로 보내시며 굳건히 자리하고 계신다. 과묵하신 할머니는 절대 싫은 말씀 못하시며 이웃에게 해가 되는 이야기는 못들은 척!!!

“할머니!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응, 막내딸 내외 잘 되고 큰딸 내외 건강하고 모든 것 평화롭고…”

구순이 넘으신 할머니의 진솔함 가운데서 한결 같으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떠올리곤 한다.

잡수시는 것, 입는 것, 기본적인 것들 모두 우리들의 손이 꼭 필요하신 우리 “뽕” 할머니. 치매의 혼동 속에서도 사진을 가슴에 간직하시며 “우리 아들 언제오지, 아마 바빠서 못 오는 것 같아, 곧 올 거야” 행여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봐 섭섭함을 못내 감추시며 미소를 띄우시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본다.

“마리아 할머니! 아드님 오셨어요?”

“아이구, 우리 효자 아들 왔네.”

활동적이신 마리아 할머니님이 요즘 부쩍 귀가 들리시길 않아 갑갑해 하시는 모습이 안스럽다. “때가 되면 가야 하는데 왜 주님께서 안 불러 가서 우리 수녀님들 고생 시키는지 모르겠어? 아

마 연옥 보속 미리 시키나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성모송을 노래하듯 수시로 읊으시는 할머니는 때론 아기처럼 투정도 하고 어리광을 성모님께 부리곤 한다.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할머니를 성모님께서 특별히 품어주시리라 믿는다.

유난히 꽃을 좋아하시는 멋쟁이 윤 할머니, “식물도 사랑을 줘야 잘 자라고 싱싱하지.” 할머니를 위해 탁자에 작은 꽃밭을 마련해 드렸다. 아침, 저녁 꽃잎을 어루만지시며 소곤소곤 무슨 말씀을 그리 정겹게 나누시는지… 프란치스코 성인이 곁에 계시다는 느낌을 받는다. 자연 안에서 해님, 달님과 절친한 친구였던 성인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 한다.

감사의 하루를 보내며 잠자리를 준비하는 할머니들, 짧은 순간이지만 바쁘다. 화장실보기, 잠옷 갈아입기, 틀니 닦아 담그기, 사소한 일이지만 차례를 기다리며 양보하고 배려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예쁘다.

작은 공간속에서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 매 순간 순간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작은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제 손으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 때는 팔을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요한 21,18)

인생순리에 따라 거처야 할 순간을 함께 맞이하며, 애써 살아오신 우리 할머니들의 남은 여생을 “성가정”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빌며, 우리 수녀님들의 일상의 삶과 기도하는 오늘날의 순간들이 하느님 사랑으로 가득 채운 봉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해빈이에게



해빈아, 요즘 네가 스스로 앉고 걷는 연습을 하고 짧은 단어들을 중얼거리는 너의 모습을 보면 처음 너를 만난 작년 4월 24일이 생각이 나는구나.

벌써 해빈이를 만난 지 1년이 넘었구나. 유난히 눈동자가 검고 애교와 웃음이 많은 해빈이가 커 가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은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다. 너무 예뻐서 눈으로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아기...

5살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6kg, 너무 작은 너의 모습에 너무 놀랐고 걸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있는 모습에 정말 선생님은 네가 그냥 안스러워 보이기만 했단다. 모두들 너를 보며 마음으로 울었고 수녀님께서 주신 영양제, 과일, 유제품들을 먹고 마냥 행복해 하던 모습에 선생님은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었어.

한참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시기에 캄캄한 방에서 혼자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또한 미숙아로 태어나서 한참을 성장할 시기에 어른들에 의한 방임으로 충분하

게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했고 선천적으로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을 흡수하지 못해서 더 네가 더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서 너의 피부는 살이 없어 5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스러운 마음을 갖게 했었어.

하지만 해빈이가 잘 웃고 애교가 많아서 한번 본 사람은 다시 너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겠지?



애교와 웃음이 많고 늘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우리 해빈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저리도록 아프고 너를 이토록 만든 어른들에게 화가 나기도 한단다.

다른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처럼 너도 잘 기어 다니기 시작해서 작년 11월부터는 스스로 앉아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어. 그 순간 선생님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단다.

그 이후로 스스로 쇼파에 올라가서 내려 오기도 하면서 산만하게 다니며 사고를 치는 해빈이가 되었지? 매일 서랍을 뒤져서 테이프나 CD를 망가뜨리고 물건들을 다 꺼내어 놓아도 선생님은 해빈이가 하나도 밟지 않고 사랑스럽게만 느껴졌어.

그 나이에 맞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유아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너의 눈을 보면 큰 검은 눈동자가 유난히 더 빛나는 것 아니?

해빈아, 선생님은 해빈이가 지금처럼 건강하고 올해 안에 꼭 스스로 걸어서 내년에는 어린이집에 갔으면 좋겠어. 너도 어린이 집에 가고 싶지?

우리 수녀님께서 사 주신 예쁜 옷 입고 신발 신고 꼭 그렇게 하자.

해빈이, 약속했다!!!



기적을 이루는 환경수세미



사방이 높은 산 파아란 하늘만 보이는 동네 고한! 산도 풀잎도 시냇물 색깔도 검었던 광산 고한! 검은 먼지만 폴폴 날리는 땅위에 어디하나 갈 곳도 쉴 곳도 없는 아이들을 하나 둘 모아 슬레이트 지붕아래 조그마한 수녀원 방에서 수녀님들이 시작한 흑빛공부방이었습니다.

헌 옷가지를 얻어다 입히고 오백원, 천원에 팔아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광산합리화로 광산은 폐광되고 큰 길을 낸다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부방마저 철거되고 수녀님들은 이곳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우갑 베드로 우리 신부님께서 부임하시고 성당 조그마한 방 하나에서 생활하시고 사제관을 비워주시어 새로 시작한 흑빛공부방. 지금의 건물을 짓기위해 육년동안 십년같은 어려움을 겪으신 신부님이십니다.

지역에서 이제 도움도 많이 받고 있지만 좁은 동네이다보니 어디하나 갈 곳도 쉴 곳도 없어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최고의 건물과 시설을 갖추다보니 돈이 많이 들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애들도 많이 쓰고 있지만 쉽지 않았는데 박은영 다비타 우리 선생님께서 인터넷에서 찾아낸 친환경수세미,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신기하게도 물오염도 줄이고 판매이익금은 공부방 기금이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뇌수술 하신분, 관절염을 앓으시는 분,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들 모두가 정성을 다해 사랑을 담아서 뜬니다. 색깔도 뜨게질도 엉망인 수세미도 팔아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 저희는 행복하답니다.

이제는 색깔도 뜨게질도 잘 맞추어 뜨다보면 저절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든답니다.

이 환경수세미가 하느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갈 소중한 물건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세미를 발명하신 분께도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시길 기도 드립니다.

수세미 판매 수익금은 흑빛 청소년 문화센터와 소중한 이 동네 청소년들이 착하고 아름답게 자라날수 있는데 쓰여질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지돈, 어린아이의 한푼 용돈, 군인의 월급이 공부방 선후배간에 우정이 큰힘이 되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고한 성당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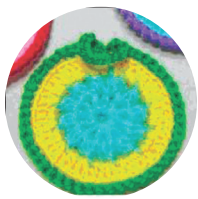
Miracle Maker – Environmental Household Scrubs



Surrounded by mountains and topped far above by a blue sky, there was once a little town called “GoHan Mine.” With so much coal dust in the air that it even affected the color of the water in the local creek, the children had no place to safely play outside. So instead they would gather in the room of the Catholic Church sisters, who lived in the house with the slate roof. They called this place the “Black Dust Study 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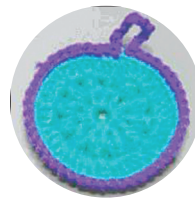
To help these children have after school activities in a safe environment, the sisters endured much hardship to pay for expenses. Their efforts even extended to the resale of donated clothes, some of which were also used to dress the kids.

Air pollution, increasing numbers of sick and injured workers, declining mine business, and many other unfavorable conditions eventually brought about the decision to close down the mines. With able-bodied workers leaving the town to seek new jobs elsewhere, the elderly and sick, along with the children, were left behind to take care of each other. To make matters worse, the government’s promise to provide better and bigger access roads to the outside world didn’t come through. Left without the resources to carry out their mission of helping the townspeople, the Catholic sisters closed the Black Dust Study Club and moved away.



When Lee Woo Kap (Reverend Peter) was assigned to the Catholic Church in GoHan Mine, he chose to give up his rectory for a very small room in the church in order to have a place to restart the Black Dust Study Club. In trying to better meet the children’s needs, the father had to overcome many obstacles over the next six years to bring about the formation of the Black Dust Youth Community Center. Even with the government’s aid, he required much

more funding to equip the building with all the necessary structures and facilities needed to meet the best interests of Gohan Mine’s children. All the townspeople, old and young, helped to raise money in various ways, including selling food as well as recycled items.



Then surfing the internet, Teacher Park Eun Young discovered the idea for the Environmental Household Scrub. In spite of everyone’s initial skepticism, the environmental safety and efficiency of these items, made from acrylic threads, brought high profit sales. This in turn helped a great deal in raising additional funds for the community center. Everyone in town, even those with arthritis or one who just had brain surgery, pitched in, and with all their love knitted these Household Scrubs. Happily, there were many considerate customers who were willing to buy poorly knitted scrubs with less than ideal color choices.



Believing that the scrubs were precious gifts from God, which would be used in making this world a more beautiful place to live, everyone involved was thankful for subsequent improvements in design and color coordination. They blessed the one who invented the special qualities of these items. The profits from the sales of Miracle Maker Scrubs, combined with donations from military men, gifts from elder’s savings, and money from children willing to share their allowances, have all been used to provide programs to enhance the lives of the youth of GoHan Mine. At the new community center, this generosity has enabled them to dream of a better future for themselves. Everyone’s loving hands have made it possible for these desolate youths to feel a sense of belonging within the big embrace of the GoHan Catholic Church family. All of the townspeople would like to extend a very special thanks to the many generous people who have helped out in so many ways.

복지관은 나의 쉼터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은빛대학원 1기졸업생 최동근 어르신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햇살은 찬란하게 비추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팔십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왔다. 참으로 길고도 긴 세월이었다.

젊어서는 희망도 많고 꿈도 많았고 따라서 할 일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 탓인지 그 무엇도 할 자신이 없다. 이제 할 일이라고는 나의 쉼터인 복지관에 와서 이름 모르는 친구들과 하루의 일과를 즐겁게 보내는 일이다.

만약에 노인복지관이 없다면 나를 포함해서 그 많은 노인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서 하루 해를 보낼 것인가?

생각하면 암담하다. 현재 우리 복지관에 등록된 회원이 무려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안다. 일상생활의 기억조차 사라져가는 노인들이 복지관을 찾아와서 하루해가 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우리의 쉼터. 요즘은 우주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들에는 야생초가 파릇파릇 잎새를 내밀며 춤추듯 자라는 모습...

우리도 저 야생초와 같이 다시 태어나 젊은 시절을 되찾을 수는 없을까? 이것이 다 헛된 욕망이겠지 하면서도 그 젊은 사람들의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매우 탐이 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노인들은 노인으로서의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매일 규칙적인 생활로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여 자기보다 허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며 사회에 봉사하는 일이다. 우리 노인들은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건전하게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이와 같이 건강을 유지하며 즐겁게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요 또 오로지 우리의 쉼터인 노인복지관이 있으므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 노인들은 이 고마움을 자각하면서 복지관을 사랑하며 즐겁게 보내주길 바란다.

-비닐봉투를 만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원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은 장애인 근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로 나뉘어집니다.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일거리를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토록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대가를 지급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입니다.

이 작업장은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건축 부지를 제공하고 원주시장이 설립하여 1998년 8월20일 운영권을 위탁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동일 부지내의 장주기 요셉 재활원의 생활장애인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근로장애인의 특성은 18세 이상의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현재 4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중 30명이 작업공정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작업장에서는 원주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의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와 마트용 인쇄비닐봉투 및 각종 농산물 포장용 비닐봉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유 생산시설은 비닐봉투 원단 압출성형기 3대, 비닐인쇄기 2대, 비닐봉투를 규격에 맞게 자동으로 절단하여 봉합하는 제대가공기 5대 등입니다. 2005년 12월 말 작업장의 2층 증축

및 생산장비의 기능보강이 이루어져 연간 생산능력이 1,000만 장 정도로 향상 되었습니다. 즉 인구 30만명 정도의 중소도시 3~4개소의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를 전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 복지사업의 완성입니다.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 일하는 보람을 느낄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완성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장인 것입니다. 이제 원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원단압출, 인쇄 및 가공, 포장과정까지 전 공정을 갖춘 명실공히 근로중증장애인의 직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들의 또 다른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주가톨릭복지회 ‘벗도랑’에서



행복지킴이 김수옥 선생님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셋별어린이집 보육교사
김경아



김수옥 선생님은 삼척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셋별어린이집의 운전기사입니다. 항상 환한 웃음에 넘쳐난 마음을 가진 따뜻한 분이십니다.

직장에서는 물론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이들이 존경하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올해 대학생이 된 둘째 딸의 첫 생일이 지났을 때 교통사고로 몸이 마비된 남편을 지금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삶을 꾸려가고 계십니다.

처음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지금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새댁이었던 시절, 큰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갓 돌이 지난 둘째를 업고 한양대 중환자실을 어쩔 줄 모르고 왔다갔다 하며 눈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주위분들이 “새댁~ 마음 단단히 먹어요. 우리가 보기엔 쉽게 일어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도 그저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퇴원을 하고 삼척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몸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되었고 3~4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는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못하고 꼬박 남편 곁에 붙어있어야 했구요. 이것저것 안해 본 치료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써 보았고 좋은 것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갔답니다. 그렇게 쏟은 정성 덕분에 남편 몸도 조금씩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셨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곳 마음 의지할 곳을 찾아 신앙인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무조건 주님을 찾고 매달리며 남편 돌보기를 지금까지 해 오신 분이시지요. 그 결과 전혀 몸을 못 움직이셨던 분이 휠체어에 의지하다가 이제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걸음을 한발씩 떼 놓으십니다. 그만큼의 결과를 얻기 위해 보낸 지난 세월속에 김수옥 선생님의 피눈물이 얼마나 많이 묻어있을까요. 그럼에도 항상 웃는 모습에 긍정적인 사고로 주위 사람들을 포근히 감싸 주십니다. 주말에는 남편과 드라이브를 나가십니다. 얼마나 아

름다운 모습인지 모른답니다.

남편의 병 수발을 하면서도 장애인 협회에 봉사활동을 꾸준히 나가서 많은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어주었고 그러다 장애인 협회 차를 운전하게 되셨습니다.

4~5년 장애인협회 차를 운전하면서 물수건을 배달하다가 원주가

톨릭사회복지회에서 삼척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되자 신부님의 추천으로 셋별어린이집의 기사님으로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가까운 곳에 직장이 생기니 점심시간에 집으로 달려가 남편의 점심식사도 챙겨드릴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나고 항상 ‘감사, 감사’ 를 되뇌이십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을 하시면서도 시간이 되면 복지관의 모든 차를 청소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마다 않고 팔을 걷어 붙이시지요.

병석에 누워계신 아빠를 엄마와 함께 돌보면서도 구김없이 밝고 착하게 잘 자란 두 딸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계신 우리 김수옥 선생님... 힘든 삶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인의 참모습으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김수옥 선생님을 우리 삼척복지관의 ‘행복지킴이’ 라 부르고 싶습니다.

원주가톨릭복지회 ‘꽃도랑’ 에서



유헬레나
(가출소녀들의 쉼자리 루치아쉼터 원장)

여름방학에 받을 상을 그리며



이루고 싶은 일들을 한 가지씩 이야기하며 새해를 맞이한 것이 벌써 4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울 아이들이 비장한 각오를 행동으로 옮기려는 듯 세례를 받은 아이들과 예비자 교리를 시작할 아이들, 이렇게 4명의 중학생들이 방학동안 매일 미사를 다니며 새해를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방학 동안은 그랬답니다 ...

새 학기가 시작되어 등교 하면서 하루 이틀 성당에 다니는가 싶더니 이제 주일에만 가서 미사하고 학생회 활동을 하거나 예비자 교리를 받습니다. 대견하지요!!

번갈아 가며 사춘기 병을(?) 앓는지 속을 있는 대로 썩이는 녀석이 꼭 한 명씩 있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지난 놀토(격주로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에는 겨우내 굳어 있는 발을 갈고 겨우내 낀 먼지도 털어내며 힘든 하루를 보냈지만 꽤 부리지 않고 아주 열심히 즐기고 닦아낸 덕에 집안이 깨끗해져 우리 모두 마음이 상쾌하고 뿌듯했습니다.

핸드폰이 없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헤프닝을 즐거이 말할 수 있는 아이들, 그만큼 이제 삶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라 성급히 판단해 보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동안 아이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학업에 별다른 흥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에게 현 상황에서 각자가 노력하여 도달할 수 있는 1차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까지 도달했을 때 핸드폰을 상으로 주기로 했

습니다. (한국의 중 고등학생 90%이상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팍팍 밀어주며 아주 통 크게 상을 내걸었더니 믿겨지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러더니 한 아이가 선생님이 해 준다고 약속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신기하다며 소리 없이 준비를 시작하니 시샘 많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 둘 합세하여 학업열기로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그리고 고지를 향해 돌진하며 상상의 나라를 한껏 펼치고 있습니다.(내게도 폰이!!!!)



살아오면서 갖고 싶은 것을 얻기보다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이 더 많았던 우리 아이들이 기회를 통해 꼭 필요한 것은 꾸준히 노력하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렇게 조금씩 자립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루치아 쉼터에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큰언니가 계약직이지만 은행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가출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 때문에 선뜻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데 저희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먼 나라 미국에서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속 사랑으로 지켜봐 주세요.

황혼의 아름다운 봉사

천사들의 집 사회재활교사 김선희

천사들의 집에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9년째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직원들에게 아름다운 노후의 모습으로 본보기가 되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른 새벽 어김없이 5시 반이면 일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의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천사들의 집’으로 올라오시는 안선주 할머니... “아이들이 힘차게 하루를 생활하려면 따뜻한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간 맞춰서 밥을 하고 국과 반찬을 챙겨 아이들의 아침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행여나 미끄러지실까 곳은 날엔 올라오시지 말라고 하면, “나의 작은 기쁨을 빼앗지 말아 달라”며 조심해서 올라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힘이 되어주십니다.

또 한 분, 천사들의 집 구석구석을 두루 살피며 시설을 관리, 청소, 수리, 정리정돈 등의 온갖 잡다한 일들을 도맡아 하시는 안기홍 할아버님... 잠시 틈이라도 나면 원내 구석구석을 다니시며,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해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은 물론 물론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은 물건들의 정리정돈까지 도맡아 하시며, 미처 손이 가지 못한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천사들의 집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니 잠시라도 할아버지가 자리를 비우면 어수선히금방 흔적이 생기기곤 합니다.

이분들은 50년을 함께 사신 부부로 고향을 등지고 북한에서 월남하셨다가, 1974년 또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가 이것저것 굶은 일 마다 앓으시고 20여 년간 열심히 일하며 자식들도 모두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던 중 미국에서 최기식 신부님의 강연을 듣고는 편안한 노후 대신 귀국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1997년 고국을 떠난 지 23년 만에 봉사하는 삶을 위해 다시 찾은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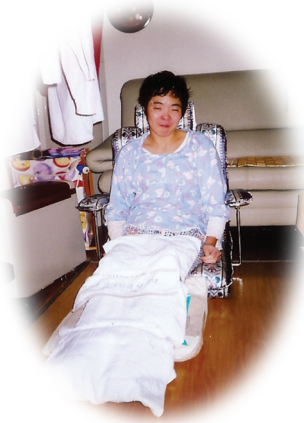
처음 3년간은 사제관 옆 쪽방에서 기거하며 봉사활동을 시작하셨고, 현재는 천사들의 집에서 10분 거리에 집을 마련하시고 매일 ‘천사들의 집’을 오가며 출근도장을 찍고 계십니다.

이제는 연세가 있으셔서 힘들다고 하실 만도 한데 봉사를 처음 시작하셨던 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오셔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두 분의 아이들에 대한 정성과 사랑에 저희는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두 분의 따뜻한 마음이 알려져 2004년에는 조선일보사와 경찰청이 주최하는 제 38회 청룡 봉사상에서 ‘인상’이라는 큰 상도 받으셨는데, 두 분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 하십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아름다운 노후의 생활상을 몸소 실천하시며, 삶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주가톨릭복지회 ‘벗도랑’에서





예샘의 집 은경이

찬미 예수님
안녕하셨어요?

이곳은 정신지체 성인 여성들이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예샘의 집’입니다.

치약산을 들어서는 입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우리 아가씨들 5명이 시설장인 수녀 엄마와 함께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즐겁게 살아가고 있지요. 웃을 일도 많고 가슴 아픈 일들도 일어나곤 하는데 요즘같아선 너무 힘이 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은경이 때문이지요.

은경이는 10년 전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버지는 간경화가 심해져서 돌아가시고 심장병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마저 심장 판막으로 돌아가셔서 4살 아래인 남동생과 함께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 버렸습니다. 동생마저 정신지체 장애우라서 현재 원주 천사들의 집에서 돌보고 있는 형편에 있고, 의지할 곳 없는 두 남매는 함께 천사들의 집에 있다가 은경이는 이곳 ‘예샘의 집’ 이 생기면서 그룹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은경이 또한 정신지체 장애우입니다. 은경이는 장애가 있다고는 하나 일상생활은 무엇이나 열심히 하며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활하는 정말 똑똑하고 마음이 착하고 고운 24살의 아가씨입니다. 시설에서 생활 한지 어느덧 10여년이 흘렀지만, 티없이 맑고 깨끗하고 구김살 하나 없이 항상 함께 사는 친구들을 돌보아주려는 천사같은 은경이를 보면 언제나 가슴이 아팠지요.

다른 장애우들과 달리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다리 하나가 심하게 짧고 중심을 못잡아 늘 까치발을 들고 다니면서 한 발로 뒤통거리며 힘들게 다니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속 깊은 친구입니다. 은경이의 신발은 한달에 두 켤레를 가져야 넉넉히 신을 수 있을만큼 20일만 신어도 다 헤어지곤 했지요. 한 발 자국 내디딜 때마다 온 힘으로 땀을 쏟아내며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저렸습니다. 수녀 엄마는 ‘내가 만일 친 엄마라면 조금만 도와주면 아주 예쁜 아가씨처럼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을텐데...’ 하며 앞 길이 구만리 같은 어리고 착하기만 한 모습을 지켜보며 도움을 줄 방법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중, 고맙게도 지난 9월 ‘희귀성 난치성 지원센터’ 라는 곳에서 수술비를 지원받아 고려대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술 이후부터 지금까지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안타까움에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다른 장애를 가진 친구들 4명을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서 은경이 하나에게만 매달릴 수 없어 서울로 은경이를 낳마다 데리고 재활치료를 할 수 없었지요. 얼마간은 해 보았지만 모두 지쳐서 병이나고 다른 친구들 꼴은 말이 아니었고, 지방에서 제대로 재활치료를 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니다. 어떻게든 은경이가 재활치료를 잘 해서 수술한 다리가 길어져 은경이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기만 합니다. 아마도 은경이가 제대로 된 가정에서 수술을 했다면 지금쯤 재활치료가 다 되어 다리에 차고 있는 보조기도 떼고 제 발로 조금씩 걷고 있겠지요? 은경이는 아직도 다리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엉덩이 아래까지 보조기를 차고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요. 시설장 수녀님은 은경이의 재활치료를 위해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우여곡절 끝에 서울 국립 재활병원에 입원수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두 달동안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간병비와 병원비를 어찌해야 할 지 ...

은경이는 보조기를 찬 불편한 몸으로 재활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작은 지방의 그룹홈에서는 은경이를 뒷받침 해 주지 못하니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설장인 수녀 엄마는 아주 작은 체구로 아픈 허리를 이끌고 은경이를 데리고 오늘도 씨름을 합니다.



< 김용호 병상일기 - 수술 후 지금 >

희망의 발걸음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찌 저렇게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을까?

물끄러미 내려다 본 내 다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 내고는 이내 나의 인생이거니 하고 포기해 버리고 애써 태연한 척 눈에 힘을 주며 눈물을 참아 봅니다. 언젠가는 나도 걸을 수 있다는 희망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꿈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의 소망을 들으셨는지 아니면 나의 기도가 주님 계신 곳까지 들렸는지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라 수녀님과 서울 구로병원으로 첫 진료를 가는 날, 몸을 뒤척이며 흥분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을 만나뵈고 많은 검사와 촬영후 마침내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곁에 계시던 수녀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수술이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큰 고통일 수도 있고 수술을 받고 나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고통과 노력이 있어야만 걸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어떤 고통이 있어도 내가 견디 못하는 고통에 비한다면 참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또 하였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흘러 입원을 하고 수술 당일 일이 되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떨지 말자고 애를 써도 처음 받는 수술이라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왔습니다. 수녀님께서 수술실 입구에서 들어가는 순간까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수녀님의 간절한 기도에 마음이 놓이고 수술실 문이 열리면서 저는 혼자가 아니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를 돌보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라앉으며 안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위에 가지런하게 빛을 발하던 형광등 불빛이 보이면서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렇듯 무사히 수술을 마치니 감사의 기도와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 내렸고 나지막하게 흐느끼는 엄마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수술 후 고통을 느끼면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시련이 끝나면 저는 걸을 수 있으니까요.

병원 생활을 마치고 천사들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이제부터는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쉽지 않으리라 생각은 했지만 20년 넘게 바로 서지 못했던 다리는 저에게 바로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땅을 밟아 봤지만 여지없이 바닥으로 몸은 추락해 버렸습니다. 넘어지기를 수만 번, 일어서기를 수만 번, 뜨거운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저는 일어서고 또 일어섰습니다. 지금 제가 일어나지 못하면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최기식 신부님과 수녀님들, 그리고 가족들, 선생님, 친구들의 마음이 더 아플 테니까요. 다리가 멎으로 가득 차고 마음에는 실망으로 가득 찼지만 저는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발자욱을 내 디고 그 다음날은 두 발자욱을 내디고 정말 감동의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 태어나 내 발로 이 땅을 디디고 서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지금 저는 아직도 걸음마 연습을 합니

다. 비록 남들처럼 자유롭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비록 지금은 손에 지팡이를 짚고 걸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하느님의 실수로 제가 만들어졌다고 원망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걸어 다니는 이 시간도 소중하지만 걷지 못했던 지난날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이 없었으면 걷는 것의 소중함과 행복감을 깨닫지 못했을테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당신들이 계셔서 제가 세상 속으로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다리도 치료를 해 주셨지만 어둠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에도 희망의 불을 밝혀 주셨습니다.

앞으로 굳건한 두 다리로 힘차게 땅을 밟고 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oking out the window at people walking by with so much ease, I unknowingly gave out a long sigh of envy. When I gazed down at my own legs, tears poured from my eyes. But soon, fighting back those tears of sadness, I tried to collect myself and accept my condition with an attitude of faith. It occurred to me, how wonderful it would be if I could at least hope to maybe walk some day. Many times I had tried to shake off this thought, telling myself that it would only be possible in my dreams. Nevertheless, to my surprise, this dream started to come closer and closer to reality.

Accompanied by Sister Vera, the journey began with a visit to Kooro Hospital in Seoul. At my first appointment, I was feeling very apprehensive, fearing that the doctor would tell me there was no possibility that surgery could mend my legs. Desperate for my dream to come true, I sang a song of hope in my mind while undergoing many tests and examinations. When the

Footsteps with Aspiration

The Post Surgery Diary of Kim, Yong Ho

doctor finally agreed to do surgery, tears streamed down both my face, and Sister Vera's. I couldn't stop crying, as the overwhelming realization came to me that I might be able to walk like the people I had watched with so much envy.

The doctor warned me that there would be almost unbearable pain to face after the surgery. He said it would require courageous perseverance to get through the pain, and efforts greater than any previous experience in my life to make this surgery work. I made a promise to myself that I would overcome any physical pain, as long as I didn't have to continue suffering from the inability to walk.

On the day of the surgery, I bit my lips at first to distract myself from trembling like an aspen leaf in the wind. But as soon as I came to realize that Almighty God was watching over me and that many friends were praying for me, I was able to relax and feel comfort in my heart before the operation. When the surgery was completed without any complications, I offered a prayer of gratitude while watching my mother quietly sobbing nearby. Even with the pain, I was so happy knowing that I would finally be able to walk when this ordeal was over.

After being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I realized that the hard work necessary to begin walking had only just begun. I knew it wouldn't be an easy thing to walk after twenty years of immobility, but I found that even the simple, immediate satisfaction of standing on my own two feet wasn't possi-

ble in the beginning. With mighty efforts I tried to stand up, only to find my body diving again and again to the ground. Falling down and getting up countless times, I was drenched in a continuous flow of sweat and tears. In spite of frequent thoughts of giving up, I prevailed knowing that I didn't want to bring disappointment and heartache to all of my supporters, including Reverend Choi, Gi Sik, Sisters, teachers, friends and family. In spite of being filled with disappointment on the inside, and covered with bruises on the outside, I pushed myself harder to practice walking. Then one day in an inspired moment, I took first one step, and then another.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was able to stand on my feet and walk on my own.

I still practice walking. I don't move as easily or as fast as other people, but I am very satisfied being able to walk with the aid of a cane. I can now go anywhere by myself. In the past, I lived many days resenting God for His mistake in making me unable to walk. Now, I realize that I am not God's failed project, and cherish my life, both past and present. Without those non-walking days, I would never have learned the preciousness and euphoria of being able to walk. I bow my head with deep appreciation to those who helped make my dream possible. Because of these wonderful people, I am better able to enjoy this beautiful world. Besides their assistance in the healing of my legs, each of them helped guide me to the light of hope, and away from my previous world of darkness. I want to show my thanks by promising to live the best life I can, with the strength and support of my two good legs



허브 향기 가득한 살림터

정신지체 장애인시설 살레시오의 집 제천 살림터 원장 이 테오파노 수녀

고운 빛으로 연두 물감을 풀어내어 하느님이 그리시는 풍경화 한 폭 속에 포근히 자리를 잡은 살레시오의 집 통합 시설인 살림터에서 허브 향기 듬뿍 실은 초여름의 소식을 드립니다.

직업훈련센터인 살림터에는 57명의 근로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데 출퇴근하는 재가 장애인들 7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레시오의 집 가족들과 제천시 재가 장애인들의 가장 소중한 일터는 말 그대로 살림터입니다. 땅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고 가족들의 자존감도 살리고 삶의 의욕도 살리는 곳입니다.

성인장애인 시설에서 그분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돌봐드리고, 신체적 재활을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 재활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만큼의 보수를 받는 것에서 삶의 보람을 얻듯이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직업재활에 목적을 두고 “살림터”라는 직업재활센터를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에 살레시오의 집 바로 옆에 지어진 건물이 바로 살림터입니다. 살레시오의 집 가족들과 재가 근로장애인들 7명은 매일 살림터로 출근하여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체조로 몸을 풀 후에 흰 작업복을 갈아입고 일을 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더 좋아지면 제천시 재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살레시오의 집 근처와 성지 주변 노지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허브를 차로 만드는 작업은 살림터 2층 작업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작업실에 들어서면 우선 코끝에 스며드는 향기로운 허브 냄새와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얀 가운을 입고 파란 머리 수건을 동이고, 정성스럽게 허브 고르기를 하는 가족들의 진지한 모습, 수녀님이든 선생님이든 손님이든 그 방에 들어서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활짝 웃는 얼굴로 반겨주고, 약간 어설플 숨씨이지만 맛



있게 허브차를 타서 대접해주는 등 가족들의 친절함에 마음은 더욱 향기로워집니다.

살림터에서 만들어지는 허브차는 포장이나 내용물에서 다른 어떤 고급 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오히려 월등하게 좋은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어설플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기 위해 허브 차를 담은 병이며 포장 상자의 디자인 하나 하나에 까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이 허브 차에는 조금의 거짓이나 눈가림이 없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일하는 우리 가족들의 진솔하고 정성스런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허브를 재배하는 것에서부터 허브차를 병에 담아 포장하는 일까지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가족들의 손으로만 우직하리만치 끈이끈대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우리 허브차를 검증했는데 농약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 인증도 받았답니다.

문제는 허브차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가족들의 급여를 충당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허브차의 판로를 개척하는 일이 가장 힘들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허브차 판매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 중의 하나로 배론 성지 내에 허브 카페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성지의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집을 짓기 위해 2층 건물을 나무와 유리만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뼈대를 거의 갖추었는데 카페가 완성되어 문을 열면 우리 가족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서빙도 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평소에 손님들에게 허브차를 타서 대접하는 연습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올 5월 말경쯤이면 공사가 끝나고 허브 카페가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배론으로 성지 순례하시면 카페에 들러 허브 향기 스민 사랑을 찻잔에 담아 나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힘과 격려를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를 가져서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좀 불편할 뿐인 우리 가족들이 이 세상의 중요한 한 일원으로 세상과 더불어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돕는 우리 수녀들과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은 정말 많고 고된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이 빠지는 날도 있고요. 하지만 다 큰 어른들이면서도 우리를 엄마로 언니로 누나로 알고 등 뒤에 와서 덩석 매달리고 기대는 가족들의 눈빛 안에서 하느님의 눈빛과 웃음을 만날 때마다 어디선가 힘이 솟아오릅니다. 오늘도 허브 향기 가득한 살림터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우리 가족들의 기도 소리가 허브 냄새보다 더 향기롭게 피어오르네요. 우리 수녀들도 열심 중에 기쁘게 사는 하루하루를 봉헌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동결연

고국의 아동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실 후원자님을 찾고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가정, 또는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가정의 해체로 인하여 다른 친척집에 맡겨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주실 수 있는 후원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한달에 \$60씩 후원을 하며 아이들과의 삶을 함께 나누시지 않으시렵니까?

후원연결이 되면 결혼가정 아동에게 통장을 개설하고 \$50은 아이들 통장으로 입금하여 드리고 있으며, \$10은 결연아동을 관할하는 복지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703-675-9681(김데레사)

박준영 (남 13세)



지영이는 원주시 귀래면 아주 작은 시골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불이 발그레하고 수줍음 많은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지영이네 가족은 남동생 준영이와 할머니 세 식구입니다. 지영이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아버지는 막 노동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영이가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은 명절을 포함하여 일년에 두 세 번 정도입니다.

지영이네 집은 너무나 오래되어서 늦가을부터 춥습니다. 방 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거나 이불을 덮고 있어야 합니다. 겨울이 되면 방의 한 쪽 벽에는 비닐과 이불을 걸쳐서 매서운 칼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름 값을 아끼려고, 열풍기를 사용하다가 전기세가 많이 나와 이제는 한쪽 구석에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중풍' 전조증' 이라는 병으로 인하여 입원을 자주 하십니다. 병원에 서는 할머니에게 장기 입원을 권유합니다. 할머니는 아이들 둘 만 있는 것이 걱정되어서 아픈 것이 조금이라도 낫기만 하면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십니다.

지영이와 준영이는 할머니가 없으면 집에 있는 것이 무섭다고 합니다. 지영이와 동생은 할머니가 입원에 계신 병원에서 새우잠을 자고 학교에 등교합니다. 지영이가 사는 곳과 학교는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한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지영이에게는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머니가 아프지 않고, 어린 동생과 함께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영이에게사랑의 손길이 닿았으면 합니다.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지영 (여 15세)



지영이는 원주시 귀래면 아주 작은 시골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불이 발그레하고 수줍음 많은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지영이네 가족은 남동생 준영이와 할머니 세 식구입니다. 지영이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아버지는 막 노동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영이가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은 명절을 포함하여 일년에 두 세 번 정도입니다.

지영이네 집은 너무나 오래되어서 늦가을부터 춥습니다. 방 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거나 이불을 덮고 있어야 합니다. 겨울이 되면 방의 한 쪽 벽에는 비닐과 이불을 걸쳐서 매서운 칼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름 값을 아끼려고, 열풍기를 사용하다가 전기세가 많이 나와 이제는 한쪽 구석에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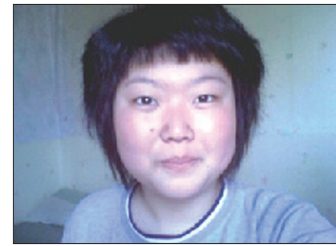
할머니는 '중풍' 전조증' 이라는 병으로 인하여 입원을 자주 하십니다. 병원에 서는 할머니에게 장기 입원을 권유합니다. 할머니는 아이들 둘 만 있는 것이 걱정되어서 아픈 것이 조금이라도 낫기만 하면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십니다.

지영이와 준영이는 할머니가 없으면 집에 있는 것이 무섭다고 합니다. 지영이와 동생은 할머니가 입원에 계신 병원에서 새우잠을 자고 학교에 등교합니다. 지영이가 사는 곳과 학교는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한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지영이에게는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머니가 아프지 않고, 어린 동생과 함께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영이에게사랑의 손길이 닿았으면 합니다.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은빛 (여 15세)



은빛이는 올해 중학교 3학년으로 그 또래 아이들처럼 꿈 많은 여학생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만 아버지는 거의 집에 들어오는 일이 없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김을 구워 장날이면 내다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을 돌아다니면서 김장사를 하고 있고, 집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일거리를 엄마에게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김을 팔아서 벌은 돈의 일부분을 생활비로 주지만 이것마저 정기적이지 않아 지난 1월, 한 달 동안은 식구가 냉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동생들도 중학교,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학비를 마련하기엔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업을 중단하여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엄마가 절대로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1년 남은 중학교 생활과 내년에 진학하게 될 고등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쳐서 힘든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은 것이 은빛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박한 꿈입니다.

은빛이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동결연

김용순 (남 15세)



용순이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는 집을 나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이는 일반 중학생들처럼 키도 크고, 꿈이 많은 아이지만 선천성 지주막 낭종(머리에 물이 차는병)이라는 희귀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물이 차지 않도록 머리부터 배꼽까지 긴 호수를 꼽고 다니는 용순이는 키가 계속 자라면 호수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수술(호수관을 늘리는)을 해야 합니다. 용순이는 계속 자라는 성장기의 청소년이어서 지속적으로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다.

용순이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학을 천마리나 접어 간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학 천 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서 어머니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용순이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용순이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용순이가 항상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인 (남 13세)



한수인아동은 “진행성 근육이양증(위축증)” (2001년 강릉아산병원진단)이라는 희귀성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지체장애아입니다(2002.11.15 지체장애3급 판정).

장애등급을 받던 당시는 혼자 일어나서 걷는 것과 보행에 있어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는 질병이 진행함에 따라 근위축이 진행되어 보행 및 이동 동작은 물론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성이 많이 상실되었고 심기능 까지 장애를 초래하게 되어 밤이면 가슴통증과 다리통증을 많이 호소한다고 합니다.

한수인아동의 부모님은 지난 2001년, 음료유통업을 시작하였으나 경제불황 등으로 곧 사업에 실패하였고 그로인한 갖가지 채무 및 빚을 지게 되었고 그로인해 아버지는 구속되어 복역하다 지난해 출소하여 현재 일일노동을 하고 지내고 있으며 지난 추석 때 마지막 만남을 가졌고 이후론 가끔 연락만 올 뿐 찾아오지 않으며 경제적지원 또한 전무한 상태입니다.

아동의 어머니는 아동의 재진단을 통해 현재의 상황 및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고 싶어하며, 사업실패 및 한수인아동의 발병으로 빚어진 가족해체의 위기를 염려하고 있지만 매일의 불안한 미래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고 있기에 추천합니다.

강지혜 (여 8세)



강지혜어린이는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당시 미숙아로 2개월간 병원(인천 00병원) 인큐베이터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지혜 2살 때 이혼하고 중국으로 다시 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이혼 후 연락 두절로 할머니가 2살 때부터 정부의 가정위탁양육비(월7만원)로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혜어린이는 엄마/아빠라는 두 단어만 주로하며, 말을 못하고 청력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보이며, 신체적인 부분 왼쪽 손과 팔 부분이 약간 부자연스러움 쥐는힘이 약하며, 걸을 때 약간 뒤뚱거리고 잘넘어집니다. 그리고 소대변처리를 스스로 하지 못하여 할머니가 모든 것을 수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돌이 지나면서부터 양손에 끈을 돌리는 반복행동을 하여 자폐성행동도 보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확한 병원진료를 받아보지 못한 실정입니다.

-조모와 상담 한 결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혜어린이에 대한 정확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지혜에게 필요한 특수교육도 받기가 어려움으로 의료비및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정이기에 추천합니다.

뇌는 기억력, 감정, 언어, 동작 및 행동 같은,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며 한 사람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몸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뇌에 이상이 생기면 성격 변화와 기억 상실증으로 정체성을 잃기도 하고, 먹고, 소화 하고, 숨쉬고, 등 등 아주 기초적인 생명의 기계력까지 없어진다. 이런 현상을 줄수있는 여러가지 병들 중 가장 서서히 한사람의 모든것을 치밀하게 빼앗아 가는 병은 바로 치매이다.

알츠하이머 병 (Alzheimer's)

‘영혼을 잡아먹는 병’, ‘황혼의 불청객’ 으로 불리는 퇴행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치매이다. 더욱 무서운것은, 진단을 받기전 10년 혹은 20년 전부터 우리의 뇌에서 진행되고있을수 있다는것 알츠하이머 협회는65세이상은 10에 한명꼴, 85세 이상은 거의 절반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직 확실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아미노이드라는 단백질이 (Amyloid protein) 뇌세포에 쌓여서 뇌의 구조를 영키고 설키게 하여 세포간의 연결이 차단되게하고 뇌의 능력을 파괴한다는 연구결과는 발표 된지 오래됐다. 아직은 이것을 방지하는 치료는 없으나, 상태를 호전시키는 약품은 처방이 되고 있으며, 연구가 현재 진행중이니 이 병의 원인과 완치 치료 방법을 앞으로 곧 찾아 낼거라고 믿고 있다.

누구나 나이가 들으며 자주 느끼는 건망증이 혹시 치매의 초기증상이 아닐까 하며 겁을 낸다. 미국알츠하이머 협회는 치매의 일반적 증상을 포함한 경고증상들에 대한 목록을 펴냈다. 이 목록에 수록된 증상들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증상이 많다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1. 일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의 기억력 감퇴

과제나 마감일, 또는 동료의 이름을 가끔 잊어버리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나 집이나 직장에서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혼란에 빠지는 경우에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2. 익숙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

바쁜 사람들은 때때로 정신이 분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난로에 음식을 올려놓고 오랫동안 잊어버리거나, 준비한 음식의 일부를 식탁에 올려놓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 치매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식사준비를 할 경우 준비해야 할 음식을 차리는 것을 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음식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까지도 잊을 수 있다.

3. 언어 (소통) 문제

누구나 가끔 적절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나 치매가 있는 사람은 간단한 말도 잊어버리거나 부적절한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4.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각의 상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순간적으로 생각나지 않거나 가게에서 무엇을 사야하는지 잊어버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치매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자주 다니던 거리에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 곳에 있는지, 어떻게 집으로 가야하는지 모를 수 있다.

5. 흐려지는 판단력

추운 밤에 스웨터나 코트를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이다. 그러나 치매가 있는 사람은 가게에 실내복

차림으로 가거나, 무더운 날 블라우스를 몇 겹씩 껴입는 등 눈에 띄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할 수 있다.

6. 논리적 사고의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통장의 잔고를 재 확인 하는 일은 골치아픈 일이다. 그러나 치매가 있는 사람은 숫자를 인식하거나 간단한 계산을 하는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7. 물건 잘못두기

지갑이나 열쇠뭉치를 아무곳에 놓아두고 일시적으로 잊어버리는 경우는 누구에게도 종종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치매가 있는 사람들은 다리미를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손목시계를 설탕통 속에 넣어둔 후 그 물건들이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 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8.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러나 치매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별 다른 이유없이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9. 성격의 변화

사람의 성격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치매가 있는 사람은 어느 한 순간 또는 일정기간에 걸쳐 성격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관대하던 사람이 화를 잘 내거나 의심을 하는 성격으로 변할 수 있다.

10. 개인적 관심의 상실

집안일, 사회활동, 또는 사회적 의무에 때때로 지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의 관심을 유지하거나 다시 원래대로 되찾게 된다. 그러나 치매가 있는 사람은 평상시 관여하던 대부분의 일에 무관심해 지거나 그냥 내버려두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혹시 자신이나 가족중에 이런증상들이 나타나면 곧 치매조기 진단을 받아서, 초기에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한다. 고칠 수 있는 원인 (혈관성, 이차성 치매중) 이라도 뇌조직의 구조적인 손상이 일어난 후에는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간단한 치매의 의사진단에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검사들과 (시계 그리는 검사, 간이 정신상태검사, 기능 평가 단계 시험), 더욱 더 나가 다른 혈관성,이차성 치매 상태인가를 판단 하기위해 치매의 원인 조사에 필요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MRI, PET, qEEG, 혈액과소변검사 등등).

복지회 물품 소개

물품판매액 전액 각 시설 복지후원을 위해 보내드립니다. 주문은 후원회로 전화주세요. 703-675-9681

친환경 수세미 \$10 (3개)



환경수세미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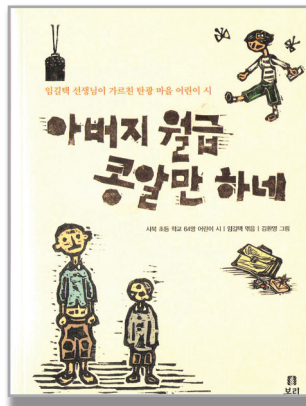
1. 세제를 쓰지 않아도 기름 제거 능력이 탁월하며, 미끄럽지 않아 일반 수세미에 비해 목은 때도 탁월하게 잘 진다.
 2. 주방 세제는 물도 오염시키지만 그릇에 남아 사람의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3. 냉장고, 전화기, 밥통 따위 전자제품에 묻은 때도 세제없이 잘 지워지며, 빨래비누를 조금 묻히면 더 잘 닦인다.
- 환경수세미는 아크릴 실로 만드는데, 아크릴은 합성수지에 아세톤을 녹여 만든 섬유로 물기를 바짝 말려 쓰기만 하면 언제나 새것처럼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지구를 살리는 수세미' 라고 해도 누가 뭐랄 사람 없죠?

Benefits of using the efficient Environmental Household Scrub:

1. Eliminates old, greasy buildup without the aid of detergent.
 2. Prevents the accumulation of harmful residue on dishes by not requiring the use of dishwashing liquid.
 3. Cleans all electric household items, such as refrigerators, telephones, and microwave ovens, with ease. Only a little dab of laundry detergent is needed.
- As mentioned, Environmental Household Scrubs are made with acrylic threads. Drying them thoroughly after each use guarantees their efficiency for many uses thereafter.

아버지 월급 콩알만 하네 (\$15)

이 책은 고 임길택 선생님께서 탄광촌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시며 판권을 강원도 고한의 폐광지역 아동복지 흑빛공부방에 기증하신 책입니다.
어린이들이 지금 환경과 생활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입니다.



무공해 허브차 \$32(한박스에 2종류허브차)

살레시오의 집에서 재배한 친환경 고품질의 허브차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부터 수질검사, 토양검사 등을 통하여 '무농약 인증' 을 정식 교부받은 친환경 고품질 허브차를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하여 드립니다.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

'게르니카'

박수미-중앙문화센터 미술강사
일본 교토 조형 예술대 미술학부 양화전공

<예술가는 인류나 문명에 그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위기를 주는 전쟁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20세기의 모든 예술운동에 영향을 끼친 개척자이자 거장 파블로 피카소! 그리고 그의 걸작중의 하나 <게르니카>, 누구나 한번쯤은 본적이 있을 것이고 누구의 작품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흑백의 치밀한 대비와 난해한 구성, 무엇인가 비극성과 상징성으로 가득한 화면, 그러나 이것은 작가 개인의 내면이 아니다. 직접 눈앞에 펼쳐진 장면 또한 아니다. 조국 스페인에서 들려오는 비보와 자신의 상상력이 결합된 고통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무엇이 이토록 이 예술가를 분노케 했는지, 자! 이제부터 <게르니카>의 역사속으로 들어가 보자.



-스페인 내전 속에서 태어난 대작-

“독재자 프랑코가 죽어서 스페인이 다시 자유를 찾았을 때 <게르니카>가 스페인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한다” 이 말을 남기고 20세기 회화의 거장 피카소는 91세로 프랑스에서 세상을 떠났다.

1937년 프랑코 반란군을 지원한 독일 나찌군은, 정부 군편에 있던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작은 마을 게르니카를 무차별 폭격, 무고한 시민과 아이들을 참살시켰다. 80%이상의 가옥과 1,500여명이 학살된 내전 최대의 참사였다. 이 일은 당시 스페인 공화국 정부의 의뢰로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한 벽화를 구상중이던 피카소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돌아갈 수도 함께 할수도 없었던 조국의 아픔, 피카소는 독일 공군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게르니카를 그려 그들의 만행을 폭로하였다.

Pablo Picasso's "Guernica"

"GUERNICA"

By SooMi Park,
Art Teacher at Joongang Cultur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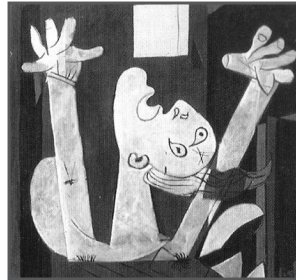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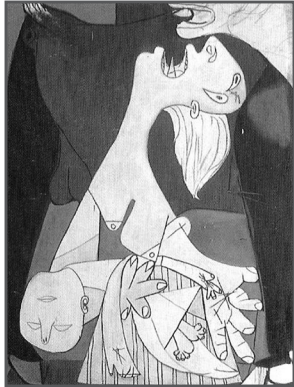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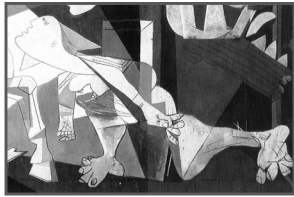
As an artist myself, I feel that artists should not be apathetic toward any war that threatens the roots of mankind and its civilization. Pablo Picasso, the twentieth century's most well-known and influential artist, created the masterpiece mural "Guernica", which is considered to be one of modern art's most powerful anti-war statements. Full of symbolism and tragic feeling, the elaborate, black and white "Guernica" is composed of contradictory and ambiguous images. The painting is not representative of Picasso's inner self, or a realistic depiction of events he viewed with his own two eyes. Rather, the final product is something born from the artist's apocalyptic visions, apparently serving as an outlet for the immense pain triggered by the tragic news of bloodshed in his native homeland, Spain.

What was it that so enraged and appalled Picasso? Let's explore possible answers by examining the history of "Guernica."

Birth of an archenemy in Spain.

Picasso died in France at the age of ninety-one. As a last wish he said, "When the dictator Franco dies, and Spanish citizens are finally allowed to practice freedom and democracy, "Guernica" should be returned to the arms of the Spanish people."

In 1937, with Nazi Germany's army supporting a fascist coup, troops loyal to Generalissimo Francisco Franco attacked the little Basque town of Guernica in northern Spain. The civilian population was pounded by a barrage of high explosive and incendiary bombs, killing over fifteen hundred townspeople, and destroying nearly eighty percent of all buildings. This was the worst massacre in the history of Spain, and the horror of this assault on Guernica deeply shocked Picasso. At the time he was searching for creative inspiration, as he had been asked to paint a mural for the exiled Spanish Republican government that would be exhibited at the upcoming world's fair in Paris. After the attack, he decided to shift his focus towards a painting depicting the tragic events that took place in Guernica, with the intent of divulging the terrible atrocities perpetrated by Nazi Germany on behalf of Franco.



투우장의 소를 모티브로 한 창에 찢린 동물들, 죽은 아이를 안고 절망하는 어머니, 부러진 칼과 불타는 집, 공포와 분노로 절규하는 군상들을 캔버스에 가득 채우고 피카소는 전쟁의 부당함과 평화에 대한 갈구를 호소하며 조국 스페인의 비극을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역사는 프랑코군의 승리라는 부조리로 끝났고, 그 후 프랑코의 지배는 36년간 계속되었다.

<게르니카>는 박람회 기간 후 유럽을 중심으로 대반향을 불렀지만, 자유를 갈구하는 작품이었기에 자유가 없는 스페인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대서양을 건너 뉴욕 근대 미술관에 보관되었다.

피카소가 죽은지 2년 후, 프랑코가 사망하자 스페인의 민주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게르니카>의 귀국을 열망하는 목소리가 각지에서 일어났다. 살아서 이루지 못해 유언으로 남겼던 <게르니카>의 귀향. 결국 피카소 탄생 100주년이 되는 1981년 프라도 미술관 별관에 그 결실을 맺게 되었고, 1992년 부터 소피아 왕비 미술센터에 옮겨져 평화의 염원을 전해오고 있다.

<게르니카>, 그 배경도 모른채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했던 적이 있다. 청색 시대와 장미빛 시대를 거쳐 큐비즘을 완성한 개성과 재능이 넘치는 화가 피카소의 작품이기에 더욱 난해하게 다가왔었다. 배고픔도 개인적 굴욕도, 실연의 상처도 아닌, 조국의 아픈 역사가 배경이라는 사실에 많이 감동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첫번째로 이 작품을 선택한 것 같다. 자유로운, 그러나 그 자유를 만끽할 수만은 없는, 지금도 세계각지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폭력에 작게나마 항거해야 하는 우리 개개인의 의무감이 그나마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폭력에 항거한 피카소처럼...

The large canvas is filled with many images. There are animals pierced by spears that echo the motif of bulls in the bullfighting ring, a mother in agony holding her dead child, a broken spear, a burning house, and images of enraged, horrified people screaming and crying out. This testimony of the civil war in Picasso's homeland not only proclaimed to the world the injustice of war, but also held out the hope of a peaceful end to the conflict.

But as fate would have it, history presented Franco a victory in this war, and his dictatorship ruled Spain for another thirty-six years. Picasso's masterpiece raised the consciousness of many people in Europe after the 1937 World's Fair, but because of its inherent message of protest, it could not be returned to a Spain where no freedom was allowed at the time. Instead it was housed in a temporary home at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City.

Democracy in Spain rapidly developed after Franco died in 1975, two years after the death of Picasso. Eager voices calling for the return of "Guernica" to its homeland were heard everywhere in Spain. In 1981, the centenary of Picasso's birth, his final wish was finally carried out with the transfer of "Guernica" to a new showcase in an annex of the Prado Museum. In 1992, the painting was shown at the Reina Sofia, Spain's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serving as a strong reminder of the desire for peace.

Not being aware of its historical background, there was a time when I wondered about the meaning of the name, "Guernica". I had a hard time understanding this work created by Picasso, a person so full of talent and individuality, who constantly evolved and changed through the many stages of his artistic career. I was so impressed when I learned that the true theme of "Guernica" was not born from the artist's hunger, or personal humiliation, or heartbreak from the loss of love, but instead his response to the painful history of his native land. This is why I have chosen this masterpiece.

I would like to think of freedom, not only as something enjoyed, and perhaps at times taken for granted, but also as something expressed with courage by individuals in their day-to-day existence as a shield against life's many injustices and brutalities. Freedom is what holds the world together. Just like the resistance against unlawful oppression expressed in Picasso's painting...

20세기 미국 현대 문학의 대표작가

윌리엄 포크너 (WILLIAM FAULKNER)

이소영 (원주카리타스 편집인 / 전 National Geographic 한국판 편집장)



< 포크너의 집 ‘로원오크’ >

아주 싫어했으며 텔레비전은 평생 소유하지 않았고 에어컨도 설치하지 않았다.

그는 이 집에 살면서 12권의 소설을 창작했으나 Rowan Oak야말로 그의 영감의 산실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몇 해 전, 랜덤 하우스 출판사에서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영어 소설 100선(the top 100 English language novels of the 20th century)에는 그의 작품 가운데 ‘음향과 분노(The Sound of the Fury)’가 6위, ‘죽음의 기간(As I Lay Dying)’이 35위, ‘8월의 빛(Light in August)’이 54위에 올라있다.

포크너의 집에 가다

미국의 남부 미시시피 주(Mississippi)에는 미시시피대학(애칭은 Ole Miss)이 있는 옥스포드(Oxford)라는 학교도시가 있다. 이 소도시의 가장 유명한 시민은 바로 노벨상 수상작가인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이다.

지금도 매년 2만5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그의 집을 찾는다고 하는데, 교수, 포크너 번역가 등 대개 지식인들이라고 한다. 나도 최근 그의 대표작인 ‘음향과 분노(The Sound and the Fury)’를 읽고 그의 언어 구사력과 실험적인 작품 구성에 매료되어 있었던 터라 그의 집을 보는 순간 짜릿한 흥분감을 느꼈다.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오솔길 양편으로는 그의 사생활 보호에 큰 역할을 했을 거대한 고목들이 늘어서 있었다. 집안에는 그의 걸작들을 탄생시킨 타자기를 비

롯해 그가 쓰던 물건들의 대부분이 보존되어 있었다.

그의 집은 1972년부터 미시시피대학에서 박물관의 일부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영감의 산실, 로원 오크

포크너는 1930년에 노후한 그리스 복고 건축양식(Greek Revival)의 이층저택을 6천 달러에 구입한 후 1962년 타계할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로원 나무(rowan tree)가 악운을 몰아내준다는 스코틀랜드 전설에 따라 이 집의 이름을 ‘로원오크(Rowan Oak)’라고 짓고, 20여 년에 걸쳐 대대적인 배관공사, 전기 설치, 지붕 교체, 베란다 건설 등 집을 직접 수리하고 증축할 만큼 이 집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다. 그는 문명의 이기와는 거리가 멀어, 라디오와 전화를

포크너의 생애

그의 학력은 초라하다. 그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고등학교를 2년 다닌 후 중퇴한다. 그는 자기보다 1살 반 연상인 이웃집 소녀 에스테일(Estelle)과 사랑에 빠지지만 그의 장래성을 의심한 그녀 부모의 반대로 헤어진다. (하지만 후에 그녀는 첫 남편과 이혼한 후, 2명의 자녀를 데리고 포크너와 결혼한다.) 21세에 그는 캐나다의 왕립 항공부대(Royal Flying Corps)에 입대해 수습비행사로 토론토에 갔다가 기본 훈련을 마치고 전에 1차세계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참전조차 못하고 옥스포드로 돌아온다. 그 후 전역 군인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미시시피대학에 입학하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한다. 아이로니컬하게도 그는 영어(English) 과목에서 D를 받았고, 한 문학 동호회에서는 그를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윌리엄 포크너는 누구인가?



< 옥스퍼드 광장에 있는 포크너의 동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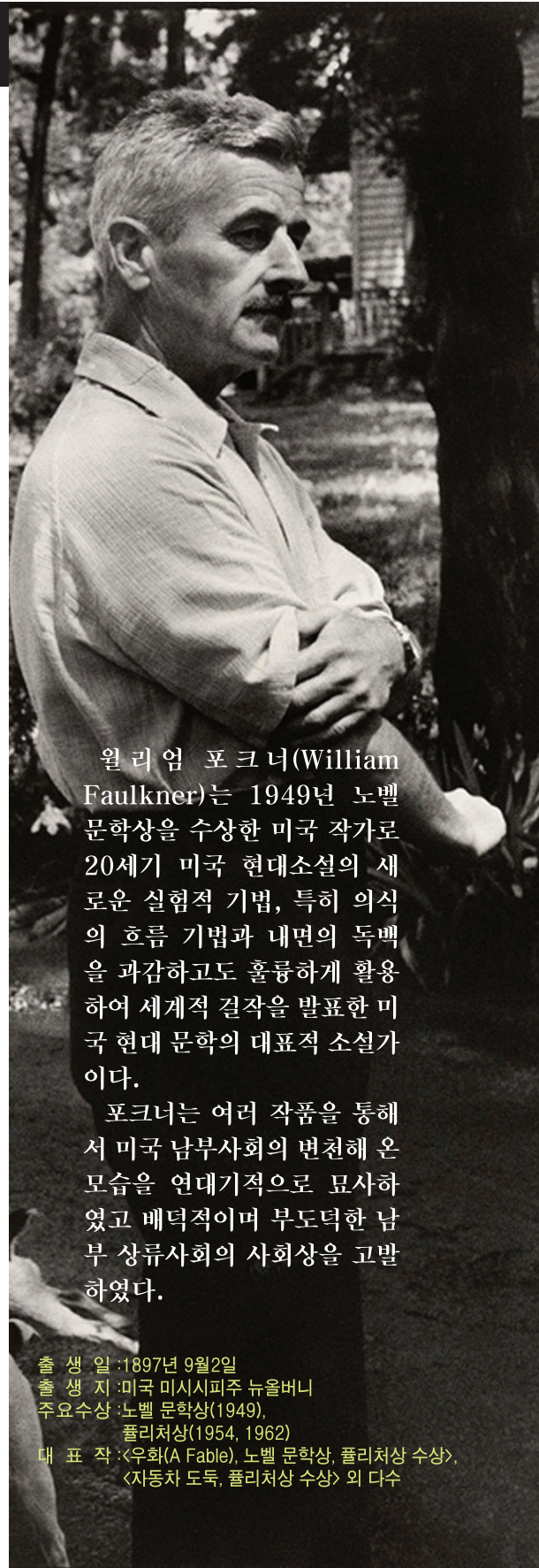
그 후 그는 대학 우체국을 맡아서 운영했는데, 친구 필 스톤의 말에 의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최악의 우체국장” 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한 교수는 우편물을 받으려면 우체국 뒷문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야 할 판이라고 불평했는가 하면, 잡지가 오면 포크너 자신이 다 읽고 나서야 배달했고, 근무 시간에 친구들을 불러 카드게임을 즐겼으며, 골프 치러 갈 때는 우체국 문을 일찍 닫았다고 한다. 그런데 1987년 8월에 옥스퍼드에서 ‘포크너 인물 우표’의 발간 기념식이 열렸으니 얼마나 아이로닉한가!

그는 술을 상당히 즐겼다. 핑계거리가 생길 때마다 (예를 들면, 작품을 끝냈거나, 작품이 실패했다거나 수상 소식이 전해졌다거나 하면) 몇 일 간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 생전에 알코올 중독(alcoholism)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던 그는 결국 병원에서 1962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는 Rowan Oak에서 멀지 않은 세인트 폴 묘지(St. Peter's Cemetery)에 아내와 함께 묻혔다. FAULKNER라고 쓴 그리스 신전 스타일의 비석 주변에는 포크너 팬들이 갖다놓은 술병들과 말 인형(그는 말타기(horse riding)를 즐겼다), 꽃, 동전, 캔디 등이 놓여 있고, 그의 시신을 덮고 있는 돌판에는 “사랑하는 자여, 신과 함께 가시게(BELOVED, GO WITH GOD)”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 포크너가 묻힌 세인트 폴 묘지 >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는 194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작가로 20세기 미국 현대소설의 새로운 실험적 기법, 특히 의식의 흐름 기법과 내면의 독백을 과감하고도 훌륭하게 활용하여 세계적 걸작을 발표한 미국 현대 문학의 대표적 소설가이다.

포크너는 여러 작품을 통해서 미국 남부사회의 변천해 온 모습을 연대기적으로 묘사하였고 배척적이며 부도덕한 남부 상류사회의 사회상을 고발하였다.

출생일 : 1897년 9월2일
 출생지 : 미국 미시시피주 뉴올버니
 주요수상 : 노벨 문학상(1949),
 풀리처상(1954, 1962)
 대표작 : <우화(A Fable), 노벨 문학상, 풀리처상 수상>,
 <자동차 도둑, 풀리처상 수상> 외 다수

A: that took me a while to get through ‘The Sound and The Fury.’
 휴, ‘음향과 분노’ 를 다 읽는 데 한참 걸렸어요.
 B:I know. Its sentences are complex, full of imagery and time shifts.
 알아요. 문장도 복잡하고, 이미지도 많고, 시간도 자꾸 바뀌니까.
 A:But it was worth reading. Now I appreciate how Southern culture and racial tension inspired his writing.
 그래도 읽을만 했어요. 이제는 남부 문화와 인종간의 갈등이 포크너의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됐어요.

West Virginia 산골 마을의 활기 - 토마스

이소영 (원주카리타스 편집인 / 전 National Geographic 한국판 편집장)

산골마을, 토마스를 찾아서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주는 강원도와 참 비슷하다. 탄광촌도 많고, 주 전체가 애팔래치아 산맥(Appalachian Mountain range)에 놓여 있어 험준한 산세의 경치가 압권이다.

‘촌뜨기’ 라는 뜻의 hillbilly도 원래는 이곳 사람들을 비하해 부르던 단어였다. 19세기 중반, 석탄이 발견되는 바람에 한동안 유럽이민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번창을 구가했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 추세여서 인구가 줄면서 유명마을(ghost town)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3040피트 고지에 있는 토마스(Thomas)라는 산골마을만은 예외였다. 오히려 타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순전히 Purple Fiddle(보랏빛 피들)이라는 뮤직카페 덕분이다. 남편과 함께 4시간 넘게 운전해서 토마스까지 찾아간 것도 저녁에는 퍼플 피들에서 라이브뮤직을 즐기고, 낮에는 근처 계곡에서 래프팅(whitewater rafting)을 하기 위해서였다.

토마스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만인의 고향 토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WELCOME TO THOMAS, Everyone’s Hometown)’ 라고 적힌 팻말이 방문객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다. 이런 푸근한 메시지와는 달리, 도로변에 즐지어 서 있는 빈 건물과 노후 건물들 때문에 처음에는 실망하기 십상이다. 그런데 잠시 후, 펑키(funky)하면서 트렌디(trendy)한 퍼플 피들이 나타나면 실망감은 안도감, 그리고 기대감으로 바뀐다. 벽에 붙여놓은 ‘Hippies, Use the Side Door.(히피는 옆문을 이용하세요.)’ 라는 재치있는 글귀가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전부터 이곳의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피들러의 휴식처’에 여장을 풀다

우리가 묵을 Fiddler’s Roost(피들러의 휴식처)라는 B&B(Bed & Breakfast, 민박)는 카페 바로 옆에 있었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사진기자 출신인 주인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도시생활을 접고 카페와 민박 운영자로 변신한 인물로, 천혜의 자연환경에 세련된 도시 감각을 첨가해 산골에 근사한 문화공간을 마련해놓았다.

우리는 여장을 풀기 위해 일단 B&B로 갔다. 입구에 걸어놓은 “Rise and drink the bliss.(아침에 일어나 행복을 들이키세요.)” 라는 목판이 마음의 여유를 회복시켜주었다. 방 이름도 Lark in the Morning(아침의 종달새), June Apple(6월의 사과), Morning Dew(아침이슬) 등, 시적(詩的)이다. 20세기 초에 탄광회사가 입주해 있던 duplex(두 세대용 주택)를 개성 있는 민박으로 개조한 이 숙박시설은 방마다 엔틱 칩대와 퀼트(quilt)로 독특하게 꾸며놓았다. 창밖으로는 울창한 숲이 한눈에 들어왔다. 계곡 밑으로 보이는 산책로는 석탄을 운반하던 철로였다고 한다.





흥겨운 라이브 카페, 퍼플 피들

저녁이 되자 퍼플 피들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음식과 커피는 모두 유기농 재료를 쓰고 있고, 맥주는 microbrewery (소규모 맥주양조장), 와인인 local winery (지역 와인양조장)에서 만든 것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I wash dishes for beer at the Purple Fiddle. (나는 퍼플 피들에서 맥주를 마시려고 설거지 일을 한다.)” 라는 재미있는 포어가 웃음을 자아냈다.



사람들은 식사를 하거나, 드링크를 마시거나, 카드를 하거나, 카페 곳곳에 전시돼 있는 특이한 예술품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다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묘하게 가족적인 분위기였다. 밴드 연주가 시작될 시간이 되자, 카페 안은 물론이고 옥외 테이블까지 사람들로 꽉 찼다. 다들 어디서 이 깊은 산속까지 찾아왔을까, 신기하기만 했다. 주인 말에 의하면, 이 카페를 연 이래 단 하루도 라이브뮤직을 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날 밤 초청된 ‘폴리제스터스(Polyjesters)’ 라는 3인조 밴드의 연주 역시 카페 전체를 들썩이게 할만큼 흥겹고 훌륭했다.



나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산중의 유명마을을 현대인의 휴식처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다. 세련된 도시감각, 수준급 라이브뮤직, 수려한 주변경관, 독특한 숙박시설 등, 퍼플 피들의 매력은 참 많았다.



- A: Excuse me, I’ m lost. Can you show me the way to the Purple Fiddle cafe?
실례합니다만, 길을 잃었어요. 퍼플 피들 카페까지 어떻게 가죠?
- B: No problem. Stay on this road for another five miles and then turn right on Route 32. The Purple Fiddle is about two miles farther down on the right. You can’ t miss it.
아주 쉬워요. 이 길을 따라 5마일 더 가다가 32번 도로에서 우회전하세요. 2마일쯤 더 가면 퍼플 피들이 오른쪽에 있어요.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잊혀지지 않는 전쟁 Unforgotten War

이소영 (원주카리타스 편집인 / 전 National Geographic 한국판 편집장)



< 19개의 미군 조각상이 세워진 조각공원 >

워싱턴에 남겨진 6.25전쟁의 흔적

해마다 6월이 되면 자연 6.25전쟁(Korean War)을 떠올리게 된다. 미국 전쟁 역사에서 한국전은 승리한 2차세계대전과 실패한 베트남전 사이에 끼여 'Forgotten War(잊혀진 전쟁)'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워싱턴에는 이런 인식과 상반되는 증거가 있다. 바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이다. 1995년, 김영삼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의 미국방문시, 휴전협정 42주년을 맞는 7월 27일에 맞춰 클린턴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된 이 기념비는 이제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 정치인이면 저마다 들르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작년에 워싱턴-서울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들렀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이 기념비를 참배하고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한미 간의 우호협력을 대변하는 기념비의 상징성 때문이리라.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150만 명의 자국민을 낳설고 먼 한국이라는 나라로 파견했고, 이로 인해 54,24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

산들바람이 상쾌하게 부는 날, 나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보러 가기 위해 워싱턴 기념탑(Washington Monument)에서 링컨기념관(Lincoln Memorial)을 향

해 걷기 시작했다. 한국전 기념비는 워싱턴 기념탑의 그림자가 반사되는 리플렉팅 풀(Reflecting Pool)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조성돼 있는 전쟁 기념비들 가운데 하나이다. 동서 양쪽에 배치돼 있는 제2차세계대전 기념관과 남북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링컨기념관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베트남전 기념비가, 남쪽에는 한국전 기념비가 각각 자리하고 있다.

한국전 기념비로 들어서자 스테인레스 강철로 실물보다 크게 만든 군인 조각상들이 시야를 장악했다. 정찰중인 미군들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다. 원래는 38선을 상징하기 위해 38개 상으로 계획했으나 공간 부족으로 절반인 19개만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조각정원과 평행으로 나 있는 얼굴 벽(The Wall of Faces)의 반들반들

< 참전 용사들의 얼굴이 새겨진 [얼굴 벽] >

한 검은 화장암 표면이 19개의 조각상들을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에 38개 상이 서 있는 듯한 효과를 낸다. 그뿐만 아니라, 이 검은 벽에 에칭돼 있는 참전용사 2500명의 실물 얼굴들은 멀리서 바라보면 산이 많은 한국지형을 나타내도록 디자인돼 있다. 조각상들 사이에 심어놓은 주니퍼(향나무 계통) 관목들 역시 낮설고 거친 이런 지형을 반영한 것이고, 조각상들 앞에 놓여 있는 화장암 판은 참전용사들이 극복해야 했던 장벽을 상징한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추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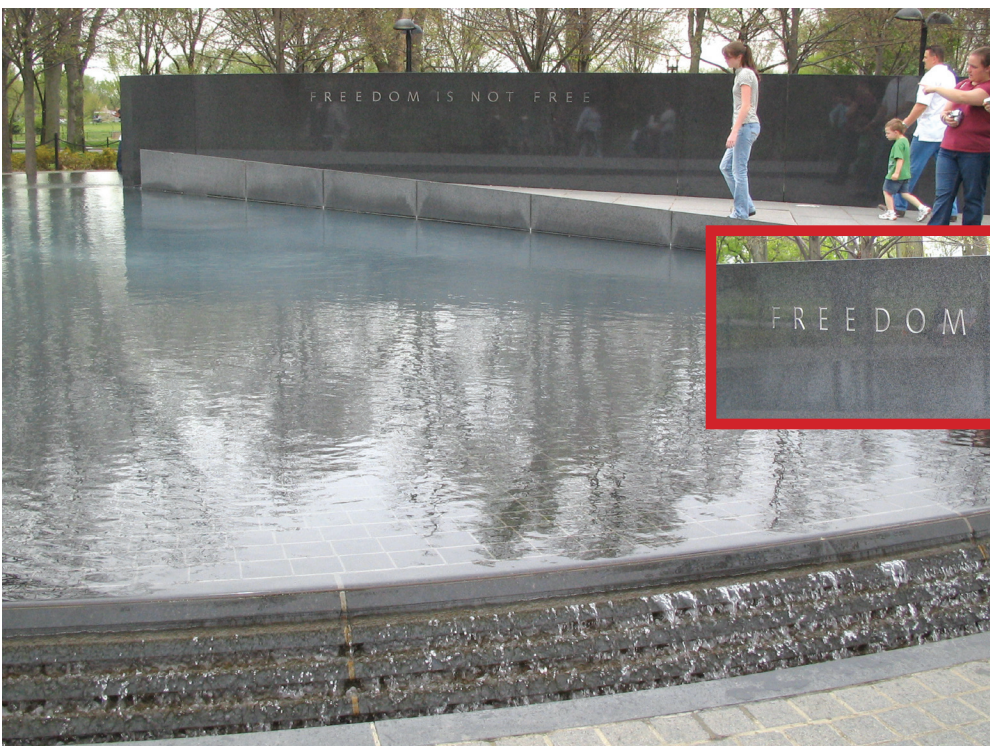
이 조각정원 앞에는 기념비의 목적을 알려주는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우리는 잘 알지 못했던 나라

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수호하라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아들딸들을 추모한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문구를 읽고 있는데 옆에 있던 미국인들이 “맞는 말이야!(So true, so true!)” 를 외치며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 당시 미국은 지정학적 위치 외에는 한국의 정치는 물론이고, 문화, 역사, 사람들에 대해 거의 무지했다. 반세기 후, 지금의 한미 관계와 한국의 위상을 생각

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내가 갔을 때 누군가가 1952년에 사망한 데이비드 헌트(David J. Hunt)란 육군병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쪽지를 공원 한 구석에 남겨놓았다. 한국전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얼굴 벽이 끝나는 지점에는 또 하나의 벽이 추도의 풀(the Pool of Remembrance)을 가로지르며 서 있다. 이 벽에는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구절만이 크게 새겨져 있다. 한국전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라 할지라도 군사,독재정부에 항거하며 수십 년 동안 민주화투쟁 역사를 체험한 한국인이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진리’가 아닐 수 없다.



<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글귀가 새겨진 벽 >

< ‘추도의 풀’ >



러시안 팝 디바

알라 푸가초바 (ALLA PUGACHEVA)

곽노은 (워싱턴 한국복지재단 후원회장)

허스키하지만 탁월한 목소리로 호소력있게 노래하는 알라 푸가초바. 지난 30년간 러시아 대중가요계를 지배해온 팝의 여왕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도무지 거침이 없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노래하다가 입을 열어 크게 부르짖으면 한 순간 화산이 폭발하듯 무대를 덮쳐버린다.

이러한 가창력이야 말로 그녀로 하여금 마이클 잭슨 보다 더 많은 음반 판매고를 기록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는데도 모른다. 푸가초바의 음반 판매량은 지금까지 모두 2억5천만장(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이 넘는다. 서구와 비교해 취미 여가 활동비 지출이 적은 러시아와 동구권에서 이 정도의 음반이 팔렸다는 것은 정말 놀랄만 한 일이다.

심수봉이 불러 큰 인기를 모았던 리메이크 송 ‘백만송이 장미’ 도 바로 푸가초바의 수많은 히트곡중 하나인데 이 노래는 러시아의 시인 ‘안드레이 보즈니센스키’ 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이다.

푸가초바는 1949년 4월15일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 5살에 벌써 그 유명한 ‘필라 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정도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다. 7살에 모스크바의 ‘No.31 음악학교’ 에 입학, 음악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1966년 음악대학을 졸업했다. 게다가 졸업을 앞둔 1965년에는 ‘로봇’ 이란 곡을 직접 만들어 노래까지 했으며 라디오 프로그램 ‘굿 모닝’ 을 통해 대중에 발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뒤 푸가초바는 곡예사였던 첫 남편과 결혼하여 딸 크리스티나 아브라카이체를 낳았다. 딸을 키우는 동안에도 몇몇 그룹의 보컬리스트로 무대 매너와 노래 실력을 계속 향상시켜 나갔다.

1975년에는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불가리아의 황금 오르페우스 국제음악제 에서 ‘할레퀸’ 이란 곡으로 그랑프리상을 받았다. 1977년부터 3년간은 그룹 ‘Ritm’ 과 같이 일하며 영화 ‘노래하는 여인’ 에 주인공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이 영화는 무려 5천5백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이어 1978년에는 폴란드 ‘소피아 국제 음악제’ 에서 ‘왕들은 뭐든지 할 수 있

이’ 를 노래하여 ‘엠버 나이팅게일’ 상 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 즈음 푸가초바는 동구권 최고의 슈퍼스타인 우크라이나의 ‘소피아 로타루’ 와 노래 실력을 놓고 경쟁을 벌였는데 그 일은 아직까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소련에서 공산정권이 무너지면서 그녀는 재빨리 사업에도 손을 들었다. ‘알라’ 잡지와 향수 그리고 ‘알라 푸가초바’ 구두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게 그녀의 사업이었다.

푸가초바는 정부에서 주는 예술 공적상은 물론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민간인 훈장 등 수많은 상을 받았다. 1994년에는 45세의 나이로 가수이자 프로듀서였던 26세의 필립 키르코로프(불가리아 출신)와 4번째 결혼했으나 작년 11월 이혼했다. 현재는 29세의 가수 겸 코메디언 막심 갈킨과 사귀며 사랑을 나누고 있다. 푸가초바와 그의 나이 차이는 무려 27살이다.

그녀는 2000년 2월 미국과 캐나다의 6개 도시를 돌며 콘서트를 가졌다. 푸가초바의 딸로 역시 인기가수인 크리스티나가 당시 함께 공연했다. 애틀란틱 시티에서의 공연때는 (타지마할 카지노, 6천석) \$35~250 짜리 좌석이 완전 매진됐으며 입장하지 못한 러시아 사람들도 6천명에 달했다. 그 때 1만2천명의 러시아

이민자들이 애틀란틱 시티를 가득 메운 장관이 연출된 것이다. 러시아에서도 그녀의 공연이 열리면 보통 1만명 넘는 청중이 찾는다고 한다.

푸가초바는 작년에 러시아에서 발표된 파워 엘리트 순위에서 1위 푸틴 대통령에 이어 2위에 랭크된 바 있다. 러시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끊임 없이 받고있는 푸가초바. 지금은 러시아판 아메리칸 아이돌인 ‘스타 팩토리’ (6회째) 스폰서로 후배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녀의 음반은 www.overstock.com 에서 구입할 수 있다.

푸가초바의 ‘백만송이 장미’ 는 원주카리타스 웹사이트 www.caritaswonjuva.com 의 ‘차 한잔의 여유 음악칼럼’ 에 들어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옴니종합보험
창사25주년 기념



완벽한 서비스, 저렴한 보험료
확실히 다릅니다
25년의 경력

25년의 경력은 흠칠 수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25년동안 옴니종합보험은 2만여 가정의 보험관리와 6천여 사업체의
재해관리를 책임져 드렸습니다 그리고 6천만불 이상의
클레임보상액을 한인사회에 환불해드렸습니다."

믿고, 지금 전화 주십시오!
1-866-915-OMNI(6664)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보험 | 생명보험 | 의료보험

Annandale Corporate Office

7010 Little River Turnpike #350

Annandale, VA 22003

T) 703.642.2225 F) 703.642.5862

Rockville Office

1401 Rockville Pike #110

Rockville, MD 20852

T) 240.399.0481 F) 240.399.0259

Hampton Roads Office

407 Honey Suckle Lane

Yorktown, VA 23693

T) 757.642.1998

Home Theater Design & Installation



TANNOY.

arena

Infocus IN74EX
106" FIX Screen
Bose Lifestyle 28 III

\$5999

(Installed-most Home)

Sony VPL-VW 1080P
119" Fix Screen
TannoyArena/Marantz

\$9999

(Installed-most Home)

Panasonic
58" Plasma

\$1999

(after rebate)
 MSRP \$2999

Buying Together Inc

Rockville Store
1028 Rockville Pike
Rockville, MD 20852
301-251-1501

Centreville Store
13830-B31 Braddock Rd
Centreville, VA 20121
703-543-8137

We Beat the Price Any Local !!!



Mercedes-Benz



2007 CLS-Class

벤츠!

순/간/마/다/예/술/입/니/다

EuroMotorcars
7020 Arlington Road • Bethesda, MD 20814

20년간의 자동차 세일즈 경험과 신용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USTIN HAN
유스티노 한

Direct 301.215.5491
Cell 703.855.8710
Main 301.986.8800

DESIGN • PRINTING • MARKETING • MAILING

KOREAMonitor

DESIGN & PRINTING

We ensure the highest standards with our professional design & high-quality print services at a very affordable price.

A Unique KOREAN-ENGLISH Publication

We publish the KoreaMonitor, a weekly magazine covering politics, society, culture and literature.



703.750.9111

www.koreamonitor.net
www.usaprinting.net



We are committed to providing the best service
to meet your insurance & financial needs.



Greater Washington Financial Group
Lim's Financial Group

President: SK Lim

T 703) 941-8700 F 703) 941-8701
7203 Poplar St., Annandale, VA 22003



Young Won Trading

운동후 에너지 보충
 숙취해소에 탁월한 기능
 환상적인 맛과 향의 드링크
 짜릿한 MAX POWER ENERGY



게르마늄과 홍삼 등
 21가지 약재(Herb)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합한
 기적의 에너지 드링크!!

판매처

그랜드 마트, 동아 식품, 롯데프라자, 슈퍼마켓
 H-Mart, 지구촌 마켓 외 유명 동양식품점
 Triple C, Washington Cash & Carry
 7-Eleven 외 유명 서양 도매상

공급처

MP21 / Dragon Energy, LLC
 3401 52nd Ave., Hyattsville, MD 20781
 각 주별 총판 / 대리점 문의
 Tel. 703-623-MP21(6721) Fax. 301-454-0350

인간은
 태어날 때는
 알칼리였다!

산성음식, 환경오염,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산성화 되어가는 우리의 몸-
 알칼리로 돌아가자!
 알칼리수소주 처음처럼!

Chum-Churum Soju
 세계최초 알칼리수소주

처음처럼



시작은 좋은술로~
 백세주로 시작합시다

SUSHI RICE

WON TRADING INTERNATIONAL, INC.
 NET WT 40 LBS (18.14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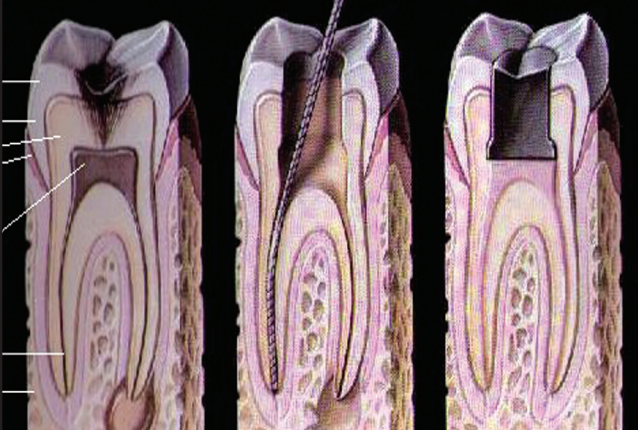
초상품질
 최고급 신품종
 GOLDEN MOUNTAIN RICE
금산미

ENDODONTICS-ROOT CANAL SPECIALIST

CHARLIE H. HONG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Charlie H. Hong, DMD, 신경치료 전문의



703.359.4447 3554 Chain Bridge Rd. Suite 401
Fairfax, VA 22030

치주치과 전문의

강원근

Perio Implant Center

인공치아 / 잇몸수술

Q 치주(잇몸)질환과 치아이식 이라면 일반치과 의사가들이 강원근 치주치과 전문의에게 리퍼(소개)하는 이유는?

A “각종 잇몸질환과 치아이식을 가장 성실것 전문의의 기술로 치료해 드립니다.”

Refer (리퍼)
일반의사들이 환자의 증상에 대하여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때 해당 환자를 전문의에게 소개하는 의료단체



703.648.0500
11866 Sunrise Valley Dr., #101, Reston, VA 20191
www.perioimplantcenter.com

학력
Tufts 치대 졸업
Univ. of MD 치주전문외 졸업
U.S., NAVY 치주 전문외 연수
Board Eligible for Academy of Periodontology
미 치주학회 정회원
Implant 학회 정회원

진료과목
치주 진료
인공 치아 이식(Implant) 상담 치료
퐁치 수술, 잇몸 성형수술
※치주와 치아 이식 진료만 합니다.

MCORTHODONTICS

권혜경

성인·소아 치열교정전문의

HYUE K. KWON D.D.S., M.D.S.
www.mcorthisodontics.com



아름다운 미소를 위해서...

- 미국교정전문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는 "7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치과 교정 상담을 꼭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 조기 발견하면 주걱턱 예방과 치열교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 투명 플라스틱 교정기(Invisalign)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무료상담
FREE Consultation

— Wellesley College 졸업
— University of Maryland 치과 졸업, D.D.S.
— University of Pittsburgh 치과 교정과 전문의 과정 수료
— University of Pittsburgh M.D.S.
— Queen Mary's, Affiliated, St. Paul's Hospital, UK
— Member of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
— Member of American Dental Association
— Member of Christian Kappa Kappa Dental Honor Society

Centreville Office
18600 Roadside Pk., Suite 101, Centreville, VA 20121
703-815-6455

Tyngsboro Office
107 W. Main St., Suite 101, Tyngsboro, MA 01879
703-883-3873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Dr. 김진욱

- DCA (Diploma)
- Drexel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South College of Permanent Equipment Fil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Regional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uncil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진료과목

Whiplash 전문치료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목이 뻣뻣한 증상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이개가 쏘이고 아픈 증상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좌골 신경통 마비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운동사고
직장사고
교통사고




CENTRE MED II
6211 Centreville Rd. Suite 900, Centreville, VA 20121
(Centreville Office)

7023 Little River Trnkp., #409,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Office)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ANNANDALE
GOLF**

애난데일 골프

체계적인 골프레슨과 각종클럽을
이젠 한곳에서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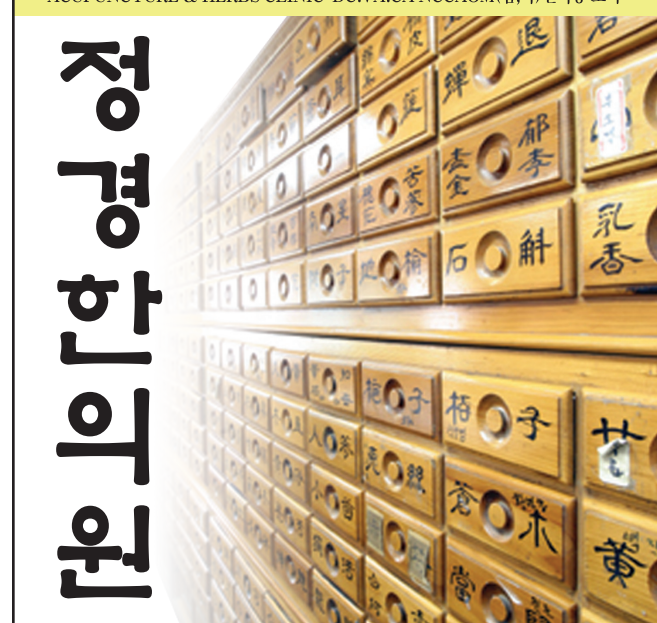
703-321-7575

5226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정통 한의학 침구과 전문의

ACUPUNCTURE & HERBS CLINIC DC.VA.CA NCCAOM(침,약)면허증 소지

정경화의원



4119 Hummer Rd., Annandale, VA 22003

703·256·0004

윤경자 치과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미소를 찾아드립니다.

703-538-2283

6081 Arlington Blvd., Falls Church, VA 22044

**차명자
치과**

Myong J. Cha, D.D.S.



모든 일반치과 진료

Office hours by Appointment

3915 Old Lee Highway Suite 22-D
Fairfax, VA 22030

(703) 273-5033

US 태권도 아카데미

U.S. TAEKWONDO ACADEMY

여름캠프

태권도, 수영, 축구, 현장학습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자녀들의 알차고 건강한 여름을 미리 준비하세요.
 선착순 특별할인

방과후 프로그램

- 전용 차량운행
- 6,000sq.ft의 넓은 도장
- 인터넷/스터디룸/게임 룸

학생들에게 안전함과 부모님께 편리함을 드리는 일석이조의 효과

태권도

한국인으로서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한국인이려면 태권도 1단은 기본입니다.

합기도/무기술(쌍절봉)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한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긴다!
 상대의 힘을 역 이용하는 호신술과 무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703-250-0100

5589 Guinea Rd. Fairfax, VA 22032
 (Next to Bowl America)

- 예의범절 전수
- 집중력 및 절제력 향상
- 자긍심 향상
- 신체단련 및 호신술 연마
- 리더쉽 향상

www.usta-tkd.com

워싱턴그래픽

미동부지역 최초(한/미포함)

실사출력 전문업체

Washington Graphic

- 차량랩핑 - 백여대 이상의 랩핑경험
- 배너/현수막 전문
- 레스토랑,델리 등의 메뉴보드, 벽화
- 그 외 모든 디스플레이 그래픽 전문

Tel.703-750-2884

김영건 (루가) 정비센터

LUKE'S AUTO CARE

Luke Kim Auto Care Specialist

Let us be your
Family's Auto Doctor

3160-G Spring Street
Fairfax, VA 22031

703.273.0020
703.463.1688

LUKE'S AUTO CARE

lukesauto@yahoo.com

한식 및 일식 • 갈비 전문점

Seoul House Restaurant

서울 하우스

단체 음식(파티) 주문 받습니다.
 (왕우유까지 전자 스시부페 (보요일 제외))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때
 서울하우스가 있습니다.
 순 한국식 한식과 갈비로
 일어가는 우리의 음식문화와
 그 때 그 맛을 찾아 드립니다.
 정감한 음식 푸짐한 식단으로
 고향의 맛을 그대로
 서울하우스가
 전애 드립니다.

703.934.8250

11272 James Swart Circle
 (Fairfax Court Shopping Plaza)
 Fairfax, VA 22030




Rachael Kim
(Broker licensed in VA/MD/DC/IL)
ABR/CNHS/ASPI/AHSP

703-774-8945 cell
703-652-5790 office

Rachael Kim

Sylvia Kim 종합보험

**저렴한 보험료
신속한 서비스**

약속드리겠습니다

- ☘ 생명보험
 - 소멸성(10년, 20년, 30년)
 - 원금환불 (Refundable Term) 보험
 - 암보험
 - 저축성 보험
 - 투자성 보험
 - 은퇴연금, 학자금
- ☘ 자동차, 집보험
- ☘ 사업체보험, 종업원 상해보험(W.C)
- ☘ 건강보험

실비아 김 T. 703-969-5067
F. 571-223-0560

Direct: 703-989-2434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Email: johnkimrealty@yahoo.com
8408 Arlington Blvd. Fairfax, VA 22031
I Truly Provide Real Estate Services for Buying and Selling at Northern VA & DC

John Kim
Vice President
Multi Million Dollar Sales Club
Licensed in VA & DC

“The Realty Company with idea and Integrity”




“The Realty Company with idea and Integrity”



Lucia Kang
REALTOR
Licensed in MD & VA
703.323.4989



Office: 703-641-4989
Fax : 703-641-0033

Email: myunghkang@hotmail.com Web: www.newstardc.com

KIM'S AUTO SERVICE
Specializing in Domestic & Foreign Cars



Nam S. Kim
3707 Pickett Road
Fairfax, VA 22031
(Next to Post Office)

703-425-4600

CHOICE Woodworking Co.
Custom Millwork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식당 / 뉴스탠드 / 세탁소 /
인테리어 woodworking 및 카운터 등을
제작하여 드립니다. - 최상규(요셉)

7954 Twist Ln. Unit H Springfield, VA 22153
공장 (703) 569-4943 | 자택 (703) 455-2330 | Cell (703) 346-1873 | Fax (703) 569-4943

No Credit, No Social, No Junk Fees, • No Problem •

주택/비즈니스/커머셜 상담

신디 김 용자

571-331-0120
cindy@loan123.com

PREMIER FUNDING GROUP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25, Annandale, VA 22003
Office: 703.914.0700 / Fax: 703.842.7076



McLean A+ Academy

SAT
- Critical Reading
- Writing
- Math

TJ Prep
- Intensive Course (12월 Test준비)

TOEFL
- New IBET Test 준비반

MS - 7, 8th
- Reading / Writing / Math

ES - 4, 5, 6th
- English / Math

Private Tutoring - all subjects
Spanish - Beginner, Intermediate

현재 여름 학기 등록중
(기간 6월28일 ~ 8월15일)

- 각 Class는 선착순 7명까지만 등록
- Level Test 후 반편성
- 2005년 TJ Test
- 본인 출신 90% 이상 합격
- Highly Qualified Teachers

여름 방학 영어특강 및 미국문화 체험 단기 연수 프로그램

- 오전 : 영어 특강
- 오후 : 미국 문화 체험(대학탐방 포함)

703-442-0900 8357-A Greensboro Dr. McLean, VA22102



1-800-ACE-8781 에이스여행사

ACE Travel

모국방문 특별요금
국내외 항공권
호텔 및 렌트카 예약
관광 상담
신혼여행지 상담
이민서류 및 방문서류
영사과 대행업무

스타여행나라

Stella's Travel Land

(301) 762-1126 Tel
(301) 762-1107 Fax
(800) 560-4565 Toll Free

230 N. Washington St. #200, Rockville, MD 20850

베스트 장비 주식회사

RESTAURANT EQUIPMENT & SUPPLY DEPOT

각종 레스토랑, 그로세리, 케리아오, 커피숍, 나이트 클럽, 뷔페, 중국사당, 동양식당, 도매상, 학교, 교회, 식당에 필요한 모든 장비 판매
관 워싱턴, 스토브, 냉동고, 냉동고, 싱크, 워시, 중국로보, 케워레지스터 등등
모든 장비를 직접 취급하고 있어, 뛰어난, 위생, 안전, 조립, 조립, 조립

소문에 오셔서 직접 구입할 수 있음
저희 경험있는 판매원과 함께 식음 디자인과 장비선택 및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식량장비 모두 있습니다!

Tel)202-635-1818
2101 New York Ave. No. Washington DC 20002
Fax)202-635-7745

Tel)202-544-2525
413 Korea St. Washington DC 20002
Fax)202-547-4883
202-547-2378 (BEST)

컴퓨터 수리·문제해결

NO!
영터리 수리
바가지 가격

- 각종 바이러스 퇴치
- 유, 무선 인터넷 설치
- 각종 컴퓨터 문제해결
- 느린 컴퓨터 원상복구
- 컴퓨터 교육

-초보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등 고급 그래픽까지 교육

(703) 635-0115 ~ 6

원주카리타스 웹사이트 광고배너

Banner Ad. On Website
\$500/yr.

(www.caritaswonjuva.com)

Q STUDIO 사진·비디오

- VIDEO
- PHOTO
- DESIGN

사진·비디오 촬영
영상을 편집·제작
인쇄, 각종 디자인

전직 방송PD 출신, 고급장비 보유
가정에서 촬영후 보관중인 비디오 테이프 편집, DVD제작

(703) 503-0308 Cell (703) 635-0115

후원회지 광고안내 (1yr. contract price)

COVER FULL AD PRICE (full color)			INSIDE AD PRICE (full color)				
BACK OUTSIDE	FRONT INSIDE	BACK INSIDE	FULL SIZE	1/2 SIZE	1/3 SIZE	1/4 SIZE	1/8 SIZE
\$3,500/yr.	\$2,500/yr.	\$2,400/yr.	\$2,000/yr.	\$1,200/yr.	\$800/yr.	\$600/yr.	\$400/yr.



후원회비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 1월~2007년 5월31일까지)

일반 / 업소 / 단체 / 기관

강금생 1월~6월분
 강명자 1월~5월분
 강명희 1월~12월분
 강승평 1월~4월분
 강승희 1월~6월분
 강운선 1월~12월분
 고경애 1월~12월분
 구귀옥 1월~4월분
 구춘희 1월~6월분
 국용주 1월~12월분
 권문희/제인 1월~12월분
 금화영/로사 1월~12월분
 김관동/강미 1월~6월분
 판동한의원 1월~7월분
 김남H 1월~5월분
 김동한 1월~12월분
 김두하/연희 1월~12월분
 김명희/율리아나 1월~12월분
 김문겸/레지나 06/1월~07/12월분
 김문철/카타리나 1월~8월분
 김미정/아네스 1월~3월분
 김선복/실비아 1월/특별후원
 김성현 1월~4월분
 김성화 1월~5월분
 김승현/원동 1월~5월분
 김영애 2월
 김영N.~2월분
 김영자/마리아 1월~4월분
 김옥주/테레사 1월~12월분
 김유현/필립보 1월~6월분
 김윤상 1월~12월분
 김인순 1월~4월분
 김재인/안나 1월~12월분
 김정임 3월
 김정자/Spencer 1월~12월분
 김경희 1월, 2월
 김경희/안젤라 1월~12월분
 김정희/준수 1월~12월분
 김중덕/아네스 1월~6월분
 김중민 1월~4월분
 김지은 1월/특별후원
 김진석/스피어 1월~12월분
 김창겸 1월, 2월분
 김호찬 1월~6월분
 김홍임 1월~3월분
 김홍자/아네스 1월~4월분
 김화동 1월~12월분

목련회 5월/특별후원
 민들레회 1월~4월분
 민일성/멜라니아 1월~2월분
 박민규 1월, 2월분
 박수웅/재희 2006년 1년분
 박영수 1월~6월분
 박종J. 1월~5월분
 박찬호 1월~4월분
 버지니아/제수프란치스코회 6월/특별후원
 백청길/세실리아 1월~4월분
 소근화/도미나 1월~12월분
 소병각 1월~12월분
 손양조 5월
 석아네스 2월
 심선옥 3월~5월분
 심외숙 1월~12월분
 성정바로/천주교 회안나회 1월~5월분
 안순상 1월~12월분
 안혁빈/테레사 1월~9월분
 양방우/정자 1월~12월분
 양헬렌/김현자 1월~6월분
 어드로테아 1월~12월분
 어진경 1월~12월분
 우기업/테레사 1월~12월분
 원승철 1월~6월분
 유정식/루시아 1월~12월분
 육옥영/용자회사 1월~12월분
 윤민숙/테레사 1월/특별후원
 이태S. 1월~12월분
 이갑용/순하 1월~5월분
 이갑현 1월~5월분
 이강영/테오도라 1월~6월분
 이광호/경옥/미라 1월~5월분
 이미순 1월~4월분
 이병희/김성현 1월, 2월분
 이테레사 M. 1월~3월분
 이만수/Modern Apparel Group 1월~5월분
 이복순/테레사 1월~6월분
 이세혁/세실리아 1월~12월분
 이순용/안젤라 1월~6월분
 이승규/분다 1월, 2월분
 이신규 1월~3월분
 이용운 1월~5월분
 이우진 1월~6월분
 이유허/레지나 1월~6월분
 이정일 1월~12월분
 이창범 1월~12월분
 이태영/치과 1월~5월분
 이태옥/리타 1월~4월분

임계빈/테레사 1월~5월분
 임승재/요안나 1월~12월분
 임채정 1월
 장리차드 1월~5월분
 장현민/윤성 1월~12월분
 전상현 1월~5월분
 전세희 1월~5월분
 전태진/베로니카 1월~6월분
 정창조/루시아 1월~5월분
 조경구/로사 1월~12월분
 조봉순 1월~12월분
 지수성 1월~12월분
 조프란치스코 1월~6월분
 채정연 1월~6월분
 최성진/어질라 1월~4월분
 최순주 1월, 2월분
 최순희 1월~4월분
 최재근/가브리엘 1월~5월분
 최재근/광송혜 1월~5월분
 최재근/광지호 1월~5월분
 최재근/글라라 1월~5월분
 최재근/썬리나 1월~5월분
 최재근/최진영 1월~5월분
 최재근/최진호 1월~5월분
 최재근/캐터린 1월~5월분
 최재필 2월/특별후원
 최정선/엘리사벳 1월~12월분
 최중길 1월~3월분
 최현옥 1월~5월분
 하명희/말가리따 1월~8월분
 성정바로/천주교회 하상회 1년 분
 허주리 1월~5월분
 한기영/분도 1월~5월분
 한마리아 1월~12월분
 한만섭/테레사 1월~12월분
 호남향우회/김재섭 3월/특별후원
 한중희/안젤라 1월~12월분
 허영숙 1월~4월분
 파티마/사도직 5월/특별후원
 Creation of Space Corp. 3월/특별후원
 홍성철/세실리아 1월~6월분
 황정자/테레사 1월~12월분
 Family Dry Cleaners 1월~12월분
 Garvey, Cheryl K. 1월~5월분
 Park's Vending Service 1월~6월분
 Julianna Reed 1월~5월분
 Andrew Tan 1월~6월분

이동결연 / 시설후원

대간의 집

고봉수/아동결연 1월~5월분
 박영희/아동결연 1월~6월분
 임상목/아동결연/시설후원 1월~4월분

대철베드로의 집

고경자/시설후원 1월~5월분
 지수성/시설후원 1월~12월분

분도의 집

이남기/시설후원 4월/특별후원
 지수성/시설후원 1월~12월분

에셋의 집

지수성/시설후원 1월~12월분

루치아집터

이테레사 1월~6월분
 최윤옥 2월~4월분
 Young SKwon 1월~4월분

Susie M. Lee 1월~4월분

이잠마/윤아 1월~4월분

송승혜 1월~4월분

오승은 1월~4월분

박찬양/Elyne 1월~4월분

삼척종합사회복지관

강중원/베로니카 1월~12월분
 구자화 1월~5월분
 김진아 1월~5월분
 박미송 1월~5월분
 박상건 1월~2월분
 백승연 1월~3월분
 소재용/난희 1월~6월분
 안크리스토퍼 1월~6월분
 이연철/박희임 1월~5월분

조정연 1월분

진한철 1월분

편성태 1월~5월분

한기병/토마스 1월~3월분

김명자 1월~6월분

송정희 1월~4월분

살레시오의 집

소재용/난희 1월~5월분

안나의 집

유원자 1월

원주비안네성소후원

구귀옥 1월~4월분
 금화영 1월~12월분
 이갑용/순하 1월~4월분
 김남레모니카 1월~5월분
 안순상 1월~12월분

김화옥골롬바1월분
 강명희1월~12월분
 조봉순/아가다 1월~12월분
 김두하1월~12월분
 지수성1월~12월분
 김정희안젤라1월~12월분
 송상훈마리아5월분
 이희자엘리사벳 1월~12월분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강명희1월~6월분
 고경자세실리아 1월~5월분
 김글라시아(3아동후원) 1월~5월분
 김지은1월~6월분
 매죽희(2아동후원) 1월~5월분
 박선숙골롬바(4아동후원) 1월~5월분
 박영수(2아동후원) 1월~6월분
 서윤배1월~4월분
 이도훈1월~2008년 3월분
 이봉기1월~3월분
 장현민/윤성 1월~12월분
 정우석1월~4월분
 정일희1월~8월분
 조성수1월~6월분
 차명자1월~5월분
 최주리1월~4월분
 한중희/영희 1월~10월분
 황덕수1월~5월분
 황치권/숙희 1월~4월분
 Hyo Sun Kim/Kyung Chun Kim 3월

재천시노인복지관

소재웅/난희 1월~5월분

청소년의 집

고봉수/태오 1월~5월분

횡성종합사회복지관

고재오1월~5월분
 고현주/베로니카(2아동후원) 1월~5월분
 김영희1월~5월분
 박선숙골롬바1월~5월분
 노명아1월~6월분
 익명 P2 1월~12월분
 안알렉스 1월~6월분
 윤경자1월~12월분
 이스텔라 1월~6월분
 정규임1월~5월분
 최일지1월~6월분

흑빛공부방

고경애1월~12월분
 김순섭1월~5월분
 늘푸른여성골프회 1월~12월분
 정일지/두현(5아동후원) 1월~5월분
 차병순/장욱 1월~5월분

최평란1월~12월분
 박정석3월분
 이진희1월~5월분
 김진희4월

내밭

석대니/테나 1월~12월분
 송정희(2아동후원) 1월~4월분
 임형준/서새봄(10아동후원) 1월~12월분
 허영숙1월~12월분
 Langbauer, Catherine 1월~2008년 5월분
 Andy Lee 1월~12월분

잠비아아프리카

안순상1월~12월분
 지수성1월~12월분

파푸아뉴기니

지수성1월~12월분
 **안순상님담: 6월

안순상1년분

이정균1년분

이인수1년분

이경중1년분

이순용1년분

한만섭1년분

임승재1년분

박수화1년분

이근호1년분

황장연1년분

이용철1년분

김용언1년분

**김세실리아님담: 2월

김화동1년분

어경식1년분

한연순1년분

한연식1년분

김두하1년분

허명자1년분

김명철1년분

이상길1년분

김미경1년분

이희연1년분

김지훈1년분

이복순1년분

이소영1년분

이경아1년분

이재현1년분

최영부1년분

정상욱1년분

백종기1년분

**김세실리아님담: 5월

최재근1년분
 양치모1년분
 금화열1년분
 한상우1년분
 조로사1년분
 김만희1년분
 우근숙1년분
 김기학1년분
 김현 1년분
 봉옥분1년분
 박용순1년분
 양정자1년분
 정은자1년분
 한상훈1년분
 김용언1년분

성심원

**김세실리아님담 5월
 이봉기1월~6월분
 박용순1월~6월분
 양치모1월~6월분
 한연순1월~6월분
 유영길1월~6월분
 김근미1월~6월분
 김만희1월~6월분
 김명철1월~6월분
 김두하1월~6월분
 유동식1월~6월분
 최모니카 1월~6월분

마더테레사 사랑의 선교회

**김세실리아님 5월
 이봉기1월~6월분
 박용순1월~6월분
 양치모1월~6월분
 한연순1월~6월분
 유영길1월~6월분
 김근미1월~6월분
 김만희1월~6월분
 김명철1월~6월분
 김두하1월~6월분
 유동식1월~6월분
 최모니카 1월~6월분

은혜의 집

안순상1월~12월분
 김옥주테레사1월~12월분

에카도르

안순상1월~12월분
 지수성1월~12월분

정신프란치스코의 집

Juliana Reed 1월~5월분
 지수성1월~12월분
 이혁주4월/특별후원
 지민 Garvey 3월/특별후원

제정

김글라시아 1월~5월분
 김명철1월~6월분
 차명자1월~5월분

TV스폰서

김글라시아 1월~5월분

홈페이지스폰서

이상훈/옴니종합보험회사 2006년도분

사랑의 모금동

Sunrise Caf 2월,4월
 Pickett Rd. Cleaners 2월
 대우비디오/Best Seller/김정춘 3월
 Capitol Caf/김명철 1월,4월
 Chesterbrook Excel/김영술 5월
 Willow Wood Caf/김정욱 5월
 Caf at Independence/박루시아3월
 Brafferton Cleaners/이갑용 4월
 Tailorcraft/이순남 4월,5월
 Kensington Cleaners/이승구 3월,5월
 길캠미2월
 Jon's Caf/최용태 2월
 Greensboro Corp. Caf/Ho Lee 2월, 4월
 Manhattan Bagel/오성웅 1월
 느미라지미용실/캐터린 박 1월,4월
 Monument Caf/최지돈 2월
 NADA Caf/샌디 최 2월
 Wow Deli/Yim, Keum Hee 3월
 Rosa's Cleaner/Rosa Yi 4월
 Liberty Caf/박루시아 3월,5월

알려드립니다

- ** 5월13일 가져오신 사랑의 모금동(\$131)의 업소이름이 빠졌습니다. 누락되신 분은 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혹시 후원금 내역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되신 분은 꼭 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주소 변경되신 회원님들은 후원회에 새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 전화:(703)-675-9681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2007년 1월 ~ 2007년 6월3일까지)

Kim, Sunbok 실비아(특별후원), Park, Jae Hee / Soo Woong Park(일반회원), 박미송(아동결연), Suk Danny & Lena(네팔아동결연), Kim, Sung Hyun / Vyunghee Lee(일반회원), 김정희(특별후원), 박케서린 / 느미라지(사랑의 모금통), 안순상(에콰도르, 네팔, 아프리카, 은혜의 집, 원주비안네성소후원, 특별후원), 이진희(아동결연), 김모니카 / 남레(원주비안네성소후원), 김골롬바 / 화옥(원주비안네성소후원), 강명희(원주비안네성소후원), 이명자(아동결연), 김미정(일반후원), Taejun Heo/Misoon Lee(일반후원), 조봉순 아가다(원주비안네성소후원), 송정희(아동결연/고국 & 네팔 2아동), Elisa Y. Rhee / 최재필(특별), 김두하(원주비안네성소후원), Young S. Kwon / Jum Sook Seo(루치아쉼터 후원), Jong M. Choi / Yun Ok Choi(루치아쉼터후원), Susie M. Lee(루치아쉼터후원), 이젤마 / 윤아(루치아쉼터후원), 김세실리아팀(파푸아뉴기니후원, 성심원후원, 사랑의 선교회후원) 석아네스(일반회원), 송승혜(루치아쉼터), 오승은(루치아쉼터), 박찬영(루치아쉼터), 김철편(사랑의 모금통), 최지돈/Monument Cafe(사랑의 모금통), Sandy Choi/NADA Cafe(사랑의 모금통), 김영애(일반회원), Relmax Gateway / Rachael Kim(회지광고) 김옥주데레사(은혜의집), 지수성-일반, 아프리카, 네팔, 파푸아뉴기니, 에콰도르, 예솨의 집, 분도의 집, 정선 프란치스코의 집, 대철베드로의 집, 원주비안네성소후원, Hyo Sun Kim/Kyung chun Kim(특별)-원주복지관 어르신복지후원, 박정석-아동결연, 박루시아 /Liberty Café-사랑의 모금통, 호남향우회 / 김계섭(특별후원), Wow Deli/Yim, Dae Silk(사랑의 모금통), Theresa m. Lee(일반), 심선옥(일반), Jin Hui Kim / Jun You Kim(시설후원), Rosa Yi / Rosa's Cleaner(사랑의 모금통), 송상훈 / 마리아(원주비안네성소), 이희자 / 엘리사벳(원주비안네성소), 임형준 / 서세봄(네팔아동후원), 버지니아제속프란치스코회, 안순상팀(파푸아뉴기니후원)

2006년 12월 ~ 2007년 5월분 후원금 내역: 총 후원금: \$85,313

후원내역	2006년 12월	2007년 1월	2007년 2월	2007년 3월	2007년 4월	2007년 5월	합계
고국 원주복지회(46개시설후원)	4,206	2,873					
아동결연/시설후원							
서울 성동장애인 복지관(지역장애인복지)	200	100	100	100	100	100	700
대건의 집(아동시설)	160	210	110	210	110	210	1010
대철베드로의 집(아동시설)	100	50	50	110	50	50	410
루치아쉼터(가출소녀보호시설)	50	50	310	190	180	50	830
삼척종합사회복지관(지역주민복지)	400	890	450	950	1230	460	4380
살레시오의 집(정신지체장애인시설)	100	60	60	60	60	60	400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지역주민복지)	1890	1820	950	1520	2390	1400	9970
제천시노인종합사회복지관(어르신복지)	100	60	60	60	60	60	400
청소년의 집(아동시설)	100	50	50	50	50	50	350
횡성종합사회복지관(지역주민복지)	1000	1900	320	800	920	850	5790
흑빛공부방(청소년복지시설)	3400	1520	920	8250	6540	860	21490
천사들의 집(중증장애아동시설)	1030						
원주비안네성소후원회	70	393	60	80	170	115	888
정선프란치스코의 집(장애인시설)	1100	50	50	1110	300		2610
예솨의 집(장애인시설)	800			360			1160
인나의 집(어르신시설)		50					50
분도의 집(장애인시설)				360	100		460
은혜의 집(성직자어르신시설)		120	60				180
해외 및 US복지후원							
네팔					2900	2040	4940
에콰도르		120			60		180
아프리카		120			2060		2180
파푸아뉴기니			980		2060	890	3930
버마난민아동급식지원					2000		2000
성심원(아동시설)					900		900
마더데레사 사랑의 선교회					900		900
빈센치오회(US)					2000		2000
성가정의 집(US 어르신시설)					300		300
	14,706	10,436	6,010	15,990	29,308	8863	85,313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길 위에 떨어진 휴지를 주웠고,
아무도 듣지 않을 때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사람을 향해 바삐 걸었고,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용서했습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 앞에서 더 약해졌고
아픈 사람 곁에서 더 아파했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을 품을 때는
더 슬피 울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은 알지만 이름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욱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좋은생각] 중에서

사진: Ocracoke Island , North Carolina



아름다운세상만들기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홈페이지: www.caritaswonjuva.com

Designed / Printed by Korea Monitor Printing 703-750-9111